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제 출 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경기문화재단의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강윤주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전수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보조연구원	고강섭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1) 생활예술 및 생활예술공동체의 범주 설정	1
2)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조사	1
3) 경기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2
4) 지역적 특색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립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내용	4
4. 연구세부내용	5
1) 국내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정책 현황 분석	5
2) 생활예술공동체 관련 경기도 내 권역별 사례 및 정책 분석	5
3) 경기도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및 운영 관련 우수 사례 조사	5
4) 12개 기초 지역 및 권역별 대표적인 생활예술공동체 심층 인터뷰	6
II. 본론	9
1. 생활예술 및 생활예술공동체 현황분석	9
1) 생활예술 및 생활예술공동체 개념과 정의	9
2) 국내외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정책 흐름 및 현황 분석	13
2.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파악	26
1) 12개 기초단위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및 지원현황 조사	26
2) 경기도 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우수 사례	38
3. 공동체 변화를 위한 생활예술공동체: 커뮤니티예술형과 마을만들기형	46
1) 커뮤니티예술형	46
2) 마을만들기형	49
4. 경기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52
1) 선행 활성화 방안 조사	52
2) 추진 방향	58
3) 유형별 활성화 방안	59
4) 추진체계	68
5)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70
III. 결론: 요약 및 시사점	77
참고문헌	83
부록	89

그림 목 차

그림 1 예술패러다임의 변화	10
그림 2 생활예술공동체의 범주화	13
그림 3 유럽 내 Creative Clash 분포와 핵심파트너	16
그림 4 VAN 홈페이지	17
그림 5 CCD관련 저술사례 : "New Creative Community"	19
그림 6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모임	24
그림 7 인천 음악정책 활성화 방안	55
그림 8 딜로이트 컨설팅의 연결모형	56
그림 9 경기 생활문화진흥 차별화 포지셔닝	58
그림 10 민선 6기 경기문화재단 비전체계	59
그림 11 문화예술교육형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61
그림 12 자발적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52
그림 13 커뮤니티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64
그림 14 마을만들기형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66
그림 15 생활예술공동체 담당조직	68
그림 16 지식공유 네트워크 체계	73

표 목 차

표 1 연구의 목적	3
표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표 3 생활예술의 역사성	11
표 4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15
표 5 국가별 자발적 예술 현황 및 지원 정책	18
표 6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예술 프로젝트 사례	21
표 7 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례	22
표 8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목록	52
표 9 유형 및 단계별 문화클럽 활성화 방안	53
표 10 성남문화도시 활성화 방안	54
표 11 관계망 특징에 따른 지원 전략	55
표 12 3차원 생활예술 활성화 방안	56
표 13 동호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57
표 14 생활예술공동체를 위한 지식 네트워크의 운영 방안	71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생활예술 및 생활예술공동체의 범주 설정

- 생활예술의 개념과 정의를 제시하고 생활예술공동체의 유형을 범주화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2)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조사

- 21세기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이 예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예술 (Art for All)'로 점점 더 변화해 감에 따라 예술성과 시민성을 겸비한 생활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로,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경기도 내 지역에도 생활예술공동체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경기남부에 문화 인프라의 70.2%가 집중해 있으며 구도심, 신도심 간의 소득 및 학력 수준의 편차 등의 이유로 경기도 내 지역별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격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신도심 개발로 인한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도 일상 생활에서의 지역 문화예술 활동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생활예술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문화가 변화시키고, 문화로 꿈꾸고, 문화로 하나 되는 경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안으로,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재능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경기도의 정체성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간 문화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에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생활예술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여, 경기문화재단이 광역 단위에서 각 기초 단위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역량 및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역량을 증진시키는 구심점이 되어야 함

3) 경기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 생활예술공동체는 각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콘텍스트에 따라 매우 다른 속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일괄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12개 기초 지역 및 권역별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광역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자 함
- ‘모두를 위한 예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초 지역 중심의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 재단 단위에서의 생활예술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4) 지역적 특색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립

- 생활예술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시민이 주체가 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12개 기초 단위 지역이 각각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생활예술공동체를 중심으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생활예술공동체의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여기서 경기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초 지역 재단에서 해야 할 역할을 구분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함
- 또한 기초 단위 재단이 협업하여 실행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유사 지원이나 중복 지원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예술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특히 시민의 요구에 맞춰 생활예술공동체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의 목적

구 분	세부내용
1) 국내외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정책의 흐름 및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의 개념과 정의 • 국내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정책의 흐름, 사업내용, 현황 조사 • 국외 생활예술공동체 현황조사를 통한 비교 분석 • 생활예술공동체 범주 설정
2)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조사 • 경기도 내 권역별 대표적인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조사 •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 기초 문화재단 등 각 주체의 요구 파악 • 기초 지역의 특색, 다양성을 포용하는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도출
3) 경기문화재단 역할 및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정책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내 유사·중복지원을 줄이고 효율적, 체계적인 시민중심의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 광역 단위에서의 경기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정책 도출 • 공동체 활성화 또는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생활예술 정책 도출
4)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및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시스템 또는 거점 기관 구축(지원 조직, 체계 및 운영방안 제안) • 각 지역별 우수 사례, 콘텐츠 공유 등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 다양한 계층의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을 위한 융·복합형 지원 정책 방안 제시

3. 연구내용

<표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p>1) 국내외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및 정책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의 개념과 정의 - 국내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정책 흐름 및 현황 분석 - 국외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및 정책 비교 분석 - 국내 생활예술공동체 범주 설정 	<p>문헌연구</p>
<p>2)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단위의 문화재단의 역할 및 운영체계 조사 - 12개 기초단위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및 지원현황 조사 - 경기도 내 권역별 대표적인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조사 - 기초단위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사업 현황 및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우수 사례 조사 	<p>문헌연구 및 전문가 면담</p>
<p>3)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 및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정책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사업 현황 분석, 지원 정책의 장점 및 문제점 파악(각 관계기관 별 역할체계 정립) -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원 정책 방안(추진체계 등) 및 역할 도출 	<p>문헌연구 자료조사 FGI</p>
<p>↓</p>	
<p>4)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 - 공동체 활성화 또는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는 생활예술정책 도출 - 경기 생활예술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 경기문화재단 역할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기문화재단 역할 도출 	

4. 연구세부내용

- 1) 국내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정책 현황 분석
 - 생활예술의 개념과 정의
 - 국내 생활예술공동체 정책의 흐름 및 현황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필요한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
 - 경기도 내 생활예술공동체의 차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경기 지역 생활예술공동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다른 지역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함
- 2) 생활예술공동체 관련 경기도 내 권역별 사례 및 정책 분석
 - 12개 기초 지역 및 권역별 생활예술공동체 관련 기존 자료를 수집
 - 각 지역 생활예술공동체 담당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지역 현황 및 핵심 공동체에 대한 정보와 지역별 활성화 방안 1차 수집
 - 이와 관련하여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국외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및 정책을 조사 분석
- 3) 경기도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및 운영 관련 우수 사례 조사
 - 12개 기초 단위 생활예술공동체 중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의 경우 담당자 면담을 통해 심층 조사를 실시
 - 이를 통해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재단 등에서 해야 할 역할을 찾아내고 다시금 기초 단위 재단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을 분석

4) 12개 기초 지역 및 권역별 대표적인 생활예술공동체 심층 인터뷰

- 경기도 내 특색 있는 생활예술공동체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초 재단에
서 실시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
- 이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기초 재단 및 경기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
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역할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각 재단들의 역할 및 전
망에 대해 도출
- 이상의 연구를 최종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여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
한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본론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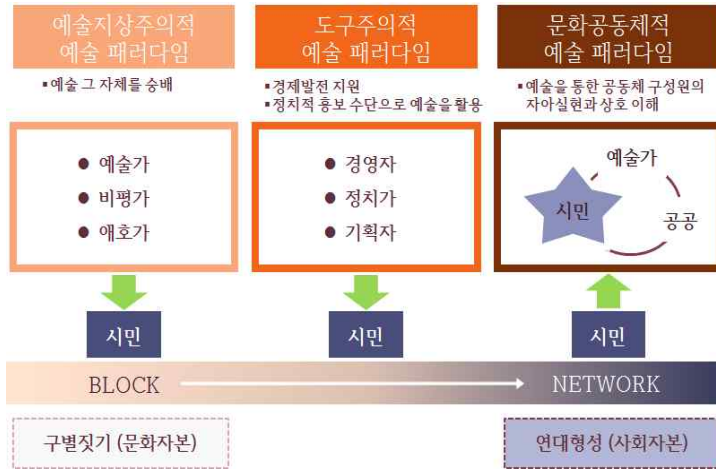
1. 생활예술 및 생활예술공동체 현황분석

1) 생활예술 및 생활예술공동체 개념과 정의

생활예술 개념과 정의

-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지역문화'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었음
-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문화의 정의를 활용하여 '생활예술'의 정의를 적용하면 '생활예술'이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예술적 활동"을 의미하게 됨
- 생활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은 개인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실현하고, 개인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이웃 및 공동체와 연결되는 활동의 무대를 제공 받고, 사회의 문화적 활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함
- 생활예술을 구성하는 예술패러다임은 문화공동체적 예술 패러다임으로 이는 예술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술영역을 의미함
- 문화공동체적 예술패러다임은 예술 그 자체를 숭배하는 예술지상주의적 패러다임이나 예술을 경제발전이나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주의적 예술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음

<그림 1> 예술패러다임의 변화¹⁾



-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전문예술가 중심의 예술의 수월성을 강조하고 전통보존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정책기조를 넘어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향유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음
-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 개인의 문화자생력, 다양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변화의 흐름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동적 향유자였던 시민들이 학습과 창작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
- 19~20세기에는 공연장과 전시장과 같은 구별된 문화공간에서 시민들이 관객이나 관람자의 역할에 머무르는 예술시스템이 정착되었으나 이러한 예술지상주의적 패러다임은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표 3> 생활예술의 역사성²⁾

시대	고대	중세/근대	19-20C	21C
예술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하다 관여하다 야기하다 <p>"연결되고 발견하고 결합하고 비평하고 창작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하다 관여하다 야기하다 <p>"연결되고 발견하고 결합하고 비평하고 창작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력적인 흥미진진한 아름다운 <p>"남의 마음을 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하다 관여하다 야기하다 <p>"연결되고 발견하고 결합하고 비평하고 창작하다"</p>
시민의 역할	비평가(전문가정신)	비평가, 전문가, 후원자	관람객	비평가, 전문가, 후원자
사례	광장과 연극 Ex)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	마을극장과 연극 Ex) 셰익스피어	극장과 TV, 대중매체의 프로그램 Ex) TV 드라마	Web, 인터넷, SNS를 활용한 창작물 Ex) 유튜브 오케스트라

- 19세기 이전의 예술은 축제, 광장, 마을과 같은 일상공간을 중심으로 시민의 생활과 보다 밀접히 연결되었고 시민이 능동적 참여자, 비평가 혹은 후원가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21세기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 매체 환경의 발전은 예술과 연관된 시민의 역할을 다시 능동적 생비자의 위치로 되돌리고 생활예술의 역사적 전통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연구」, 2009, 16p~33p, '예술패러다임의 전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

2) Tepper, S. J. & Ivey, B.(eds), Engaging Art: The Next Great Transformation of America's Cultural Life, NY: Routledge Press, 2008, 4장의 '관객참여의 역사'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함

생활예술공동체의 개념과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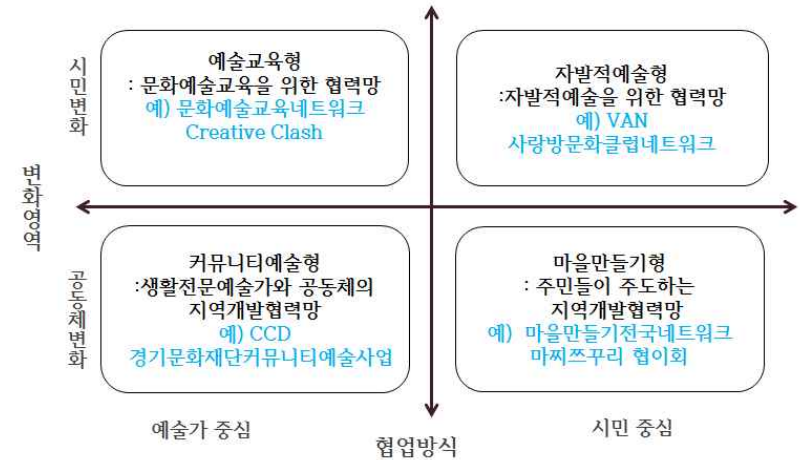
- 생활예술공동체를 좁은 의미에서 주민예술단체나 동아리로 좁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럴 경우 시민들의 사적모임을 생활예술 지원의 핵심 대상으로 집중하게 됨
- 본 연구에서는 생활예술공동체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예술적 활동을 위한 협력망으로 정의함
- 기존 생활문화공동체 및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연구에서도 사적 공동체를 넘어선 공공적 성격으로 가진 생활문화공동체 혹은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를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³⁾
- 생활예술진흥을 위해서 이를 위한 비전과 정책, 전문인력의 육성, 생활예술의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다층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연결망(네트워크)을 생활예술공동체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경기지역 생활예술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동호회들의 지원정책보다는 기초지역 단위 이상의 생활예술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의 영향으로 문화예술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축제 지원 등의 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경기지역에서도 이러한 동호회 중심의 흐름과 병행하여 기초, 광역 단위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예술, 마을만들기 등 생활예술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 연관 정책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차별적 정책 추진을 위해 요구됨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연구」, 20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2011.

2) 국내의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정책 흐름 및 현황 분석

- 국내의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정책에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예술은 시민주체적 예술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그림 2> 생활예술공동체의 범주화



- 현재 문화예술정책 중에서 시민의 예술참여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영역을 크게 문화예술교육형, 자발적예술형, 커뮤니티예술형, 마을만들기형으로 구분함
- 이처럼 시민변화인지 공동체변화인지에 따른 변화영역 차원과 예술가와 시민의 함께 하는 협업 활동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예술가중심의 활동인지 시민중심의 활동인지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을 제안함
- 이와 같은 생활예술공동체 유형 제시는 생활예술공동체가 단순 예술동아리를 넘어서 복합적 예술활동들의 총체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 문화예술교육형 : 시민(주민)이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예술가와 함께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위한 협력망
- 자발적예술형 : 시민(주민)의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예술 활동을 위한 협력망
- 커뮤니티예술형 : 시민(주민)이 공동체의 변화를 위하여 예술가와 함께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예술 활동을 위한 협력망
- 마을만들기형 : 시민(주민)이 공동체의 변화를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위한 협력망

문화예술교육형

- 첫째,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정책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생활예술의 기반이기 때문임
-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그동안의 중앙 및 공급자 중심의 체계에서 지역과 시민의 삶 중심의 체계로 변화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생활연계형'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력망 지원이 필요함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교육대상자인 학생이나 시민의 변화를 목표로 하였지만 예술가 중심의 단발적 프로그램으로 양적 성장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임
- 생활예술진흥과 문화예술교육이 시너지를 이루게 되면 일방향, 주입식, 기능전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생애주기별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공진하는 생활문화예술교육의 진화된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임
-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표4>에서 제시하였음

<표 4>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⁴⁾

분야	현황	개선방향
학교 문화 예술 교육	1. 교육내용이 기능전달에 그치고 전인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 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학생들을 전인교육으로 이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철학 및 방향성에 대한 강사 교육 과정 개발 - 교육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 사례 개발
	2. 강사나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지역 출신 예술강사에 대한 지원 및 개발 - 지역의 교육철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3. 공교육의 문화예술 교육과정과 연계 부족	- 지역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사회 문화 예술 교육	1. 네트워크 부재	-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필요 - 수준별 학습프로그램 제공
	2. 양적 평가 치중	- 질적 평가로 변환되어야 함
	3. 평생학습 연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형, 심화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 - 시민의 문화예술역량이 확대되어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연계 방안을 마련함
	4. 생활예술 지원정책과의 연계	- 문화예술동호회와 마을만들기의 기초/기반영역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자리매김 되도록 함

-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상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이 공식적인 문화예술교육형 생활예술협력망의 사례들임
- 특히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네트워크 활동들은 향후 생활과 문화예술교육의 결합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4)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발전방향」, 2014, p118~119 수정 요약

<그림 3> 유럽 내 Creative Clash 분포와 핵심파트너 (<http://www.creativeclash.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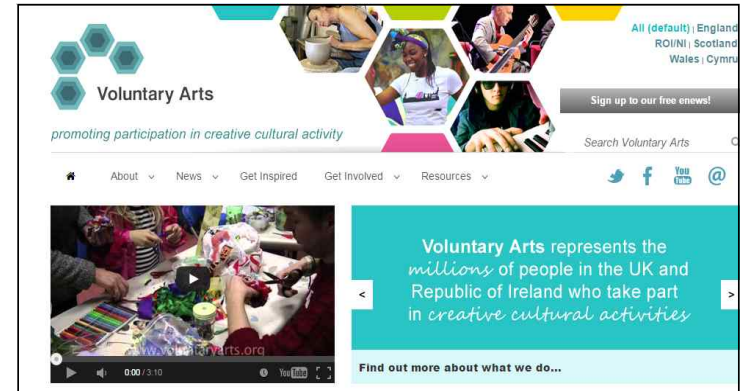
- o Creative Clash는 2009년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출범한 네트워크로 유럽 내 기업문화예술교육 기획자와 강사 및 연구자들을 네트워킹하며 관련 지식을 유럽 내에 확산하는 지식공유 모임과 컨설팅, 출판 활동을 주관함
- o Creative Clash에는 기업문화예술교육을 조직을 위한 '예술적 개입(Artistic Intervention)'으로 설명하는데, 이와 같이 삶의 영역과 연계된 세분화된 생활형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들이 점점 확대될 것임

자발적예술형

- o 둘째, 생활예술진흥을 논할 때 시민들의 예술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활동을 영국에서 유래된 아마추어 예술을 일컫는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함
- o 자발적 예술은 시민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주도로 이루어지는 생활 예술유형으로 이러한 자발적 예술을 위한 다층의 협력망은 자발적예술형 생활 예술공동체 활동으로 분류함
- o 문화예술교육형 예술가들이 매개자로서 상대적으로 예술가 중심으로 시민의 변

화를 추구한다면, 자발적예술형은 시민들이 주도하여 시민 스스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그림4> VAN 홈페이지 (<http://www.voluntaryarts.org/>)



- o 자발적예술형 협력망의 사례로는 영국의 VAN (Voluntary Arts Network)와 우리나라의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를 들 수 있는데, 우선 VAN은 영국의 자발적 예술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함
- o 영국에서는 19세월부터 약 200여개의 다양한 자발적 예술단체들의 네트워크들이 존재하다가 1991년에 연합단체인 VAN을 만들었는데 현재 영국의 자발적 예술을 대표하고 다양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o 우리나라에의 자발적예술형 협력망의 사례로는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가 있는데 2006년부터 성남문화재단이 지역의 자발적 예술단체들을 초청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축제 및 사회공헌 사업을 개발하였음
- o 2014년에는 자발적 예술 축제 들이 전국적으로 부상하여 '전국생활예술문화동호회축제', '부산 생활예술축제-일시구예', '청주 생활문화예술인 축제',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등이 새롭게 등장함
- o 지역문화진흥법이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을 표방하면서 전국적으로 생활예술 축제

및 공간 지원 등 자발적 예술 지원 정책이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발적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 사례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 향후 우리나라의 자발적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에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들을 정리하면 <표 5>로 정리할 수 있음

<표 5> 국가별 자발적 예술 현황 및 지원 정책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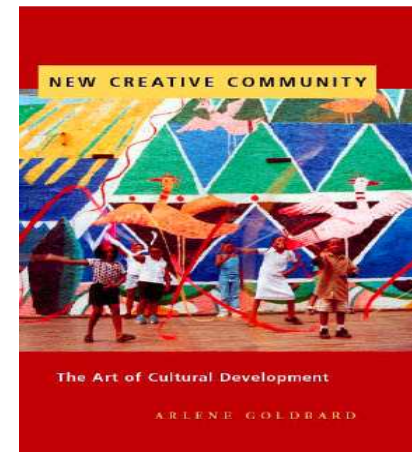
국 가	특 징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통계조사에 따른 네덜란드어 지역에서만 8천 여 개의 자발적 예술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정책의 방향은 다문화 사회인 벨기에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게 문화집단 및 개인 간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자발적 예술 동호회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며, 그중 23%는 지속적인 활동을 함 ▪ 각 지방 정부의 자율권이 강하여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으나 예술동호회를 위한 공간은 지원하고 있음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통계에 의하면 15~80세 인구 중 36%가 매주 50분 이상 자발적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정책 방향은 예술교육관점에서 학교-자발적 예술동호회-전문예술가를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예술전문기관은 자발적 예술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자발적 예술 동호회에게 공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예술 동호회가 각 주별로 활성화되어 있고, 각 주별 동호회가 다시 연방차원에서 연결되어 지원 및 관리함 ▪ 동호회 콘텐츠에 따라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음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가 자발적 예술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 지역 정부의 소관임 ▪ 직접적 지원보다는 지역의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예술가들의 전국 축제인 '국민문화제'가 1886년부터 일본 문화청과 지역 정부의 협력 하에 개최되어 왔음 ▪ 매년 다른 지방 정부가 주최를 하고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지방문화의 품격을 격상시키고 국제화를 꾀하고 있음

5)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연구」, 2009, p124~129 내용 표로 정리

커뮤니티예술형

- 셋째, 예술가가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커뮤니티예술 영역도 생활예술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이를 위한 예술협력망을 커뮤니티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로 분류함
-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긍정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예술은 엘리트 중심의 고급예술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여 서구사회에서 독립적 예술영역으로 위상이 정립되어 있음
- 미국의 커뮤니티예술은 예술 자체의 목표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삶의 변화와 발전에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러한 커뮤니티 지향적인 예술활동을 'CCD(Community Cultural Development)'라 명명할 수 있음
- CCD는 미국의 1970년 이후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소수 인종 및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대안적 예술활동을 모색하던 일련의 예술가 그룹의 활동들을 통해 발전되었음

<그림5> CCD관련 저술사례 : "New Creative Community"



- CCD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예술의 역할을 모색하였는데 활용한 정주형 예술가들은 매개자, 교육자, 컨설턴트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예술가 중심의 공동체 변화를 위한 생활예술공동체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커뮤니티예술은 경기문화재단을 지원으로 커뮤니티예술의 의미 있는 사례들이 <표 6>과 같이 창조되고 있음
- 최근 지역정주형 커뮤니티예술가들이 등장하고 청년창직지원정책 등 사회경제지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커뮤니티예술은 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혁신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부여 받고 있음

<표6>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예술 프로젝트 사례⁶⁾

No	단체	지역	활동내용
1	문화살롱공	의정부	경기도 북부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을 바탕으로 작가들을 소개하고 발굴하는 문화예술단체. 2008년 설립.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된 2개 전시실이 있으며,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 공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터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의 이슈 등을 바탕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의정부이동전> 지역 미술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 <나누미프로젝트> 시각장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작업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 수물지에 존재하는 50년 된 근대 가옥을 주민과 함께 복원

No	단체	지역	활동내용
2	대안예술공간 소나무	안성	갤러리와 작업실, 소나무미술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미술공간으로, 입주 작가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안성지역의 작가와 예술인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의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의 상호 교류와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
3	스톤앤 워터	안양	대형마트가 들어서며 기능을 상실한 재래시장인 석수 시장에 2002년 비영리예술단체가 들어서며 '생활 속 예술'을 추구하고 대안공간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냄. 석수아트프로젝트를 해마다 기획하여 진행하며 예술의 '자율성'과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실천하고자 함.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시 공간, 작가 창작스튜디오 등을 만들며 석수시장을 하나의 '예술촌'으로 탈바꿈시킴. 지역주민 대상 <리폼공작소> 프로그램, 지역학교와 연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예술을 시도
4	무늬만 커뮤니티	수원시 지동	한국 근대사에서 개인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이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소외된 사회 구성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시작된 활동. 공공미술과 커뮤니티 아트의 현장, NGO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실패의 경험에서 구성된 커뮤니티라 자칭함. 구성원의 잠재적 가능성이 사회의 핵심 에너지가 된다는 신념으로 활동. <지(우)는)동(네)프로젝트> 수원시 지동에 거주하고 있는 천원진 작가의 작업실을 중심으로 진행. 지역의 삶과 예술가의 작업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만드는지에 대한 실험적 프로젝트. 공공과 커뮤니티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을 담아 아카이브 전시도 진행하였음

6) 인터뷰 및 자료 조사를 통해서 사례를 발굴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가의 융합분야 진로현황 분석과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사회성과 융합성을 기준으로」, 2015」에도 함께 실음

No	단체	지역	활동내용
5	대안공간 눈	수원	<p>주택을 개조하여 마련된 비영리전시공간으로 지역의 실험적인 시각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공간. 원도우갤러리, 도서실, 아트샵 겸 카페, 사무실, 야외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 수원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마을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점점 낙후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동네로 변모시키고 싶은 바람으로 대표 이윤숙씨가 살고 있던 집을 개조하여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 다양한 문화예술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작가들을 모집하여 전시, 재능기부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음</p> <p><행공동사람들> 2010년 부터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진행.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행공동백화골목을 단장하였음</p> <p><커뮤니티 키친, 올(all)뽕이 프로젝트> 문화소외계층(신용불량자, 야간택배기사 등)과 함께 요리를 매개로하여 예술체험을 진행</p> <p><마을기업 행공숨씨>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작가들의 일자리를 창출,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마을벽화 보수 및 활동 공간 운영), 어르신 솜씨 발굴, 작가들의 소품개발, 벽화사업, 이정표, 문화예술기획, 투어프로그램 등을 개발.</p>
6	이웃문화 협동조합	수원시 지동	<p>'다중이해를 추구하는 예비협동조합'으로 총 30여명의 예비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생산자, 소비자, 매개자로 이용 대상을 세분화하여 매개자인 문화기획자를 중심으로 생산자인 신진 예술가나 취약계층이 양질의 상품을 만들고 소비자와 만나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연대', '협동'에 가치를 두고 경제적, 문화적 자립 방법을 찾아가고자 함</p> <p><핑퐁다방> '즐길거리'가 부족한 지동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탁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공간. 낮에는 탁구장,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커피숍 겸 바리스타 교육장으로 활용</p> <p><이웃공방> 도예작가와 도자기 수업을 하며, 그릇, 컵, 접시와 같은 공예품을 만들고 차후 상품화하여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p> <p><이웃센터> 지동 주민 및 외부 지역의 대학생들의 배움터로 활용되거나, 작은 영화제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함. 작가와 함께 헌옷, 폐품 등과 같은 것을 리폼 하는 <뭐라도 공작소>도 운영</p>

No	단체	지역	활동내용
7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p>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안산시 원곡동에서 다양한 아시아 언어의 학습을 기반으로 서로 간 문화이해를 위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공동체. 인구 구성 비중이 높은 네팔, 태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5개 언어그룹을 구성하여 매주 워크숍 진행. 이 주민이 많이 찾는 카페 령길라라는 곳에서 음악극을 개최하기도 함</p>
8	한량클럽	수원	<p>문화기획집단 '문화집합36.5'가 기획한 신개념 렉처콘서트. '시는 곧 노래다'라는 모토로 활동하는 포크밴드 '신세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즈밴드 '루나힐(Lunar-Hill)'과 역사학자 겸 서예가 윤한택 교수가 매회 불박이 한량으로 출연하여 동네 문화예술활동가들을 초청해 동네에서의 일상 예술을 이야기하는 형식의 활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음악회 형식의 대화의 장을 추구하고 있음</p>
9	동네야 놀자	수원	<p>'예술동네'를 꿈꾸는 미술가들이 시민들의 삶터로 들어가 그 속에서 만들어낸 예술을 펼쳐놓는 일종의 결과물로 아카이브 전시로 기획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수원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민족미술인협회 수원지부가 주관. 회원들의 작품과 다채로운 공동체와 협업을 통해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까지 전시. 마을 단위에서 벌어지는 미술활동, 생태문화교육활동, 문화활동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음</p>
마을만들기형			<p>○ 넷째,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붕괴된 거주공동체의 사회자본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시도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요소 등이 결합한 협력망을 마을만들기형 생활예술공동체로 파악할 수 있음</p> <p>○ 커뮤니티예술이 지역 정주형 전문예술가가 주도하는 생활예술활동이라면 마을만들기는 보다 주민들의 주도하는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모색하는 생활예술 활동이</p>

요구됨

- 마을만들기는 사회경제, 친환경, 문화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적정기술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생활예술과 결합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자발적 예술, 커뮤니티예술 등 생활예술 제조소들이 마을만들기에 융합되었을 때 진정한 공동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예술공동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림 6>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모임
(www.facebook.com/maeulnetwork?fref=ts)



- 마을만들기형 생활예술공동체로는 2006년에 결성된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있는데 전국에서 활동 중인 실행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유롭고 느슨한 연대 조직임
-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는 월 1회 '대화모임'과 매년 1회 '전국대회'를 개최하다가, 전국 14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참여하여 2013년 11월 '한국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협의회'가 출범함
- 전국적 규모의 협력망 외에도 지역별 마을만들기 협력망도 활발히 운영 중인데, 이러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협력망은 일본의 '마찌쯔꾸리 협의회'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일본의 '마찌쯔꾸리 협의회'는 민간의 주도가 된 지역재생의 모범적 협력망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공사례들을 오랜 시간 축적하고 있어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생활예술이 평생학습, 자원봉사, 도시공동화, 도시재생, 주민계획, 마을의제, 공동체회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과 연계된 모든 영역에 결합될 때 생활예술공동체의 미래는 밝을 것임

<표 7> 예술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례*)

성미산 마을만들기	삼덕동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미산 매수지 건설을 막기 위한 '성미산 살리기 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10여 년 동안 공동육아와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공동체 모임이 존재하고 있었음 ▪ 마을사람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을 마련 ▪ 마을극장, 마을축제를 기반으로 활발한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 내-외부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대구 도심에 위치한 관공서(서구청) 및 종합병원(경북대 병원)의 담장을 허물고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됨 ▪ 공공건물에서 시작된 변화는 주택으로 이어져 개인주택의 마당을 동네전체의 마당으로 개방하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본격화됨 ▪ 꾸러기 그림대회, 골목영화제와 인형극, 벽화만들기, 마을미술관, 마을문화관 등 문화예술콘텐츠를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함

7) 서울연구원,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2015, p 38-39 수정 정리

2.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파악

1) 12개 기초단위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및 지원현황 조사

가. 용인문화재단

◎ 지원 현황

- 용인의 예술을 열다
 - : 재단, 지역 예술단체 협력 사업. 재단과 용인예총이 공동개최. 시민들에게 양질의 열린 무대와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용인 문화 저변 확대. 음악회, 마당극, 대중가수 콘서트, 전시 등을 진행. 2013년 처음 실시, 2015년 신년에 2회 실시
-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 : 예술단체, 지역공동체 연계 프로젝트(마을, 거점에서 진행). 경기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공모지원 사업.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 등 지역사회 속에서 예술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 실행하는 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하고 싶은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 속에서 예술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용인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문학기획,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예술 영역)가 신청할 수 있음. 공모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선정
- 용인 뮤지엄 페스티벌
 - : 경기도박물관 연계 축제 사업. 용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공동 사업. '박물관 거리'에서 즐기는 거리 예술행사. 용인 거리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장르 거리 공연 및 생활창작예술가들의 창작 체험 워크샵 등 진행
- 시니어 소통 한마당
 - :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학교: 노년층의 특성과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는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적 자신감을 높여드리고, 일상에서 예술활동을 쉽고 편

안하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음

- 찾아가는 소설명작극장
 - : 초, 중, 고등학생 대상 한국 근대소설 연극으로 각색한 공연.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 힐링 프로젝트. 문화소외지역인 처인구, 기흥구 등을 방문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극본과 연출이 특징
- 시민 문화예술지원 사업
 - : 일반 시민 삶 속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시민 예술가 양성. 일반시민과 아마추어 단체(동호회 포함)를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를 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시각, 공연예술, 문학, 문인화, 서예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군포문화재단

◎ 지원 현황

- 파출소가 돌아왔다 시즌 2
 - : 군포 관내 파출소 유휴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재창출 프로그램. 군포시 소재 5개 파출소의 유휴공간과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문화예술가·문화예술단체들이 연계하여 창조적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해가는 사업. 운영 프로그램은 공단 근로자들이 중심이 된 직장인 뮤지컬,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그림책, 청소년 마을탐사대, 청소년 연극반 등 공동체 기반 예술활동 등을 전개. 산본파출소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및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생활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편지·그림·사진 등을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 군포나누미 학교
 - : 시민참여형 개방 참여학습, 시민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는 재능나눔과 공유의 장(場)

○ 기본 운영방침

- 시민들 누구나 강의를 열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강좌 운영

- 강사 중심의 일반강좌와 주제 중심의 테마 강좌를 함께 운영
- 언제 어디서나 열 수 있는 탄력적 강좌 운영
- 강의료와 수강료가 따로 없는 경제적 강좌 운영
- 연중 수시로 운영되는 일상적 강좌 운영
- ※ 상업적·종교적·정치적 내용을 담은 강좌는 개설 불가
- ※ 강좌 운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음

○ 회원제 운영

- 강사와 학생 모두 회원 등록
- 별도의 회원비가 없으며 강좌정보 관련 홍보 및 공지에 활용

○ 강의 장소 탄력적 운영

- 군포시평생학습원(구 군포문화센터)
- 군포시여성회관
- 평생학습마을 4개

○ 나누미학교 강좌 안내 및 접수

-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카페)를 통해 강좌개설안내 및 접수 등 운영
- 유선을 통한 접수 병행 및 회원에 문자서비스를 통한 강좌 안내

○ 강사 및 운영위원 혜택

- 강사로 참여한 회원에게 자원봉사 실적등록, 강의경력확인서 발급
-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회원에게 군포시 자원활동가 위촉 및 관련 혜택 부여

- 창업 미니 마켓

: 시민참여형 지역 문화예술 장터(창작물 전시 및 판매). 창작품(핸드메이드)을 유통, 공유하는 시장으로 군포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

- 런치타임 음악회

: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공연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C.Y.C특성화사업

: 군포 지역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CLUB팀의 활성화로 다양한 클럽활동과 개인의 특기개발

◎ 대표적 생활예술공동체

- 군포 시민 극단 '이야기 놀이터'

: 군포 시민들로 구성된 전래동화 전문, 시민 극단. 이야기 놀이터는 수년간 이야기 댕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동화극 동아리, 동화나무도서관의 책 읽 어주기 자원활동과 군포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책임어주는 문화봉사단이 인연이 된 시민이 모여 창립한 극단. 군포문화재단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다. 안산문화재단

◎ 지원 현황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 다문화 아동 대상 오케스트라 교육사업. 한국형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으로 사회 취약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지원 사업. 지정된 교육시간(매주 수, 금요일)과 장소(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합주교육

- 공연 예술제 사업

: 아마추어 극단 연합 공연 지원. ASAC 공연예술제. 안산문화재단이 주최, 안산연극협회가 주관하여 로비연주회, 창작연극공연, 작은음악회 등 공연이 2011년부터 실시되었음

- 문화 공동체 형성 사업 '왁자지껄 프로젝트'

: 마을과 안산지역 공단과 협력 공동체 형성 지원. 마을 주민 스스로가 직접 각자의 동네 상황에 맞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사업.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공동체가 뿌리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병행하여 3년간 지원

◎ 대표적 생활예술공동체

- 청소년 극단 <고등어>
 - : 고등학생들 대상 아마추어 연극 예술 단체. 매년 1개 이상 연극작품 제작. 일본 오기나와 청소년 연극제 참가하여 국제 교류. 안산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작품 발표

라. 성남문화재단

◎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 2015년 230개 동아리, 4600명의 회원이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하여 활동 중
- 연초 워크숍을 통해 한 해 활동을 공유하고 팀 조직
- 한마당 사업은 무대, 홍보물을 지원하고 9월/10월 중 한 주간 축제 개최
- 연말 활동보고회를 마친 뒤에는 한 해 활동을 정리하는 프로젝트 북 제작
 - : 전문 작가가 만들던 것을 2012년부터 사랑방문화클럽의 '시민작가단'이 직접 제작

◎ 지원 현황

- 사랑방문화클럽
 - : 성남지역 문화창조자들의 활동을 지원
 - : 시민들 자발적으로 생활 속에 문화예술 학습 및 봉사를 통한 삶의 변화를 추구, 2007년도에 직접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공적 자금의 사적 취미 활동에의 투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개별 지원을 중단하고 네트워크 활동에만 지원
- 문화통화
 - : 성남지역 통화 발행을 통해 문화생활 향유와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지원
- 그 밖의 생활예술지원 사업
 - : 평생교육사업에서의 동호회지원 사업/복지 분야에서 복지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사업/마을만들기 사업에서의 생활문화공동체사업

◎ 해결과제

- 동호회 활동은 원래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하는데, 재단이 네트워크 활동, 회적 참여, 지역 공헌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적 욕구에 소홀하다는 비판
- 생활예술이라 하면 동호회지원 사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현실: 개인은 정책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 '자생성'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
 - : 시민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직접 기획,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논의에서 시민 문화예술의 자생성은 예산의 자부담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짐.

마. 부천문화재단

◎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 2012년 동호회 조사 결과 237개 7300명이 참여
- 2013년 248개, 8000명 참여로 조사돼: 전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생존율은 80% 이상
- 2012년 조사는 부천시 문화예술과 담당공무원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민 자치센터나 복지관 등의 공공영역을 위주
- 2013년에는 학원이나 상공회의소 등을 조사하여 민간 영역까지 조사 영역을 확대
 - : 예를 들어 공방 등. 개인 연습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동호회 연습실로 사용하는 경우 다수. 월 십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경우 많음.

◎ 지원 현황

- 직접 사업보다 공간 지원 등의 간접지원이 다수. 사전연구를 통해 '생활문화에 솔진흥 중-단기 계획'을 수립했고 '생활문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실화 방안 연구'도 진행. 상동 및 오정연습장과 라온 등의 공간 대여

- 2012년부터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 가져: 모델은 생활체육협회를 삼은 듯

- 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 생활문화예술지원조례 통과

◎ 그 밖의 지원 현황

- 솔안(소안)스러운 우리마을

: 부천문화재단과 송내동 마을 사랑방 협력 사업 활동을 지원

: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생활공동체를 만들기 위함

: 연극동아리 지원 26회, 가족놀이학교 25회, 나눔장터 2회를 지원

◎ 부천시 생활문화예술지원조례의 세 가지 축

- 아트밸리사업: 문화예술교육

: 부천시는 학교 안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중등학교는 전면 시행 중이고 고등학교는 선별 지원 중 (총 예산 40억원)

: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1인1기'처럼 예술적 기능을 강조하는 한계가 존재

- 중간지원센터 설치

: 평생학습센터처럼 외부 인력으로 운영하다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으로 설계

: 사업이 안정화되면 네트워크 조직으로 넘어가는 형식

- 여성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시행

: 취미활동을 하는 여성은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시작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 취미활동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발전하게 하는 것: 이 사례 중 하나가 '담쟁이 문화원'

◎ 해결과제

- 청소년, 가족, 다문화 등으로 나누어진 지역 내 영역 간의 협업 혹은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 예를 들어 청소년 영역은 청소년 기관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주시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청소년 동호회 활동은 청소년 기관에서, 생활문화동호회는 문화 기관이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식의 관점이 있어 '기관 간 협력'보다는 실무자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임.

바. 화성문화재단

◎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 약기연주 동호회와 미술 동호회가 주류

-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운영위원회가 있음. (시각 3인, 공연 3인)

- 2011년 50개에서 2014년 75개: 큰 폭의 증가는 아님.

◎ 지원 현황

- 2010년부터 생활예술활성화지원 사업을 진행

- 75개 동아리가 공간, 강사비, 프로젝트를 위해 모두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호회는 약 30여개 정도

- 세부적으로 보자면 활동공간, 공간대여료를 지원하고, 기량 향상을 위한 강사비 지원 및 동아리간 네트워크와 문화공헌활동, 축제 지원: 공간 및 강사비 지원에 4천만원, 개별 단체 프로젝트 지원비가 천만원

-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사업과 형태가 유사

: 3년 간 동아리들의 요구사항을 지원하여 개별동아리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예술사업이 지향하는 동호회 간 네트워크나 지역사회 연계는 미흡

- 2014년도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예술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의 사업 참여도와 지역사회 참여도를 기준으로 공간 대여
- 축제는 시각과 공연 영역으로 나누어 창작 활동
 - : 시각의 경우 각 개별 동호회 전시가 아니라 예술감독을 두어 문화 소외 지역에 벽화 등의 공공미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공연팀의 경우는 '문화가 있는 날' 도심에서 동호회들이 모여 공연
- 앞으로의 과제
 - : 사회적 참여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하느냐'와 '직접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동아리들에 대한 대책 강구'

사. 하남문화재단

◎ 지원 현황

- 하남시민 노래교실
 - : 시니어 및 주부 대상 프로그램 지원. 노래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참여해 노래와 레크리에이션을 배우는 프로그램. 수강생이 발성 및 호흡법, 악보 보는 법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뒤 직접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는 발표의 기회를 주는 참여형 수업방식. 참가자는 130여명 정도
- 청소년 연극학교
 - : 연극체험을 원하는 관내 청소년 대상.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자기탐색 방법과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워크샵, 연기, 기획, 무대, 음향, 조명, 분장)등 전문강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남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진행. 참가 인원은 30명 정도
- 화요 클래식 음악감상
 - : 모든 연령이 참여하여 클래식 음악문화 향유를 지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전문칼럼니스트의 쉬운 해설과 함께 듣는 프로그램. 참여 인원 50여명

◎ 대표적 생활예술공동체

- 통자루 무용단
 -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선정단체. '우리동네 황혼 사랑방 시즌3' 기획/ 운영
 - :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아트 개념으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촬영, 제작 등 이야기를 통하여 상영 및 아카이브 전시
 - :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분들이 가진 재능과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시스템 기관이나 단체들과 형성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모색과 더불어 소통을 위한 방법

아. 의정부 예술의전당

◎ 지원 현황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 : 문화예술단체의 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 지역민의 자발적 기획, 운영, 참여가 핵심. 경기도 소재의 문화예술단체로 협회나 연합회, 예총의 이름으로 참가할 수는 없는 형태로 제한을 두고 있음
- 별별 예술마당
 - : 생활예술단체 공모지원 사업으로 지원공모 선정 동아리의 작품 전시 행사 및 공연 지원. 경연을 통해 총 7팀을 선정해 '활동지원금'을 수여하고 모든 참가 단체에게 협의를 통해 연습실 제공

자. 고양문화재단

◎ 지원 현황

- 어울림 문화학교
 - : 문화예술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미술, 디자인, 음악, 악기, 연극, 무용, 생활, 취미, 교양 관련 예술 강좌
- 아람문예 아카데미

: 인문학과 예술학을 통해 삶 속에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연을 보다 전문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문화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감상, 이론 전문 아카데미, 음악, 미술 전문 강의와 더불어 인문, 철학 등 기초 학문을 넘나드는 통합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운영

- 고양 토요창의학교

: 주5일 수업제에 의한 청소년의 창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차. 수원문화재단

◎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 2012년 <수원문화클럽 허니데이>라는 네트워킹의 자리 마련

- 2012년 연말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합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해 논의한 뒤 수원 문화클럽 '열림' 발족: 위원회의 주류는 중장년층이지만 간혹 20대도 참여함.

- 2013년 동호회 축제 진행: 토요일 하루에 모든 동호회가 9시간 동안 공연했고 40여개 동호회가 참가

◎ 지원 현황

- 문화예술 공모사업

: 수원 연고 예술가 대상으로 주민밀착형 커뮤니티 아트 등 예술 프로젝트 지원

- 수원 문화클럽 지원

: 시민 주도형 자발적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문화예술 인적자원 육성)

: 동아리별 직접 지원은 아님. 개별 동호회들은 이미 재단 또는 시 행사 등에서 공연비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열림'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 2014년부터 연습실,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0여개 회원 클럽이 있음

: 동호회 축제가 열릴 때 의상비 대여나 연습실 대여 등과 같은 목적으로, 곧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금' 성격으로 지원

: 성남 사례를 보면서 수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 모델 창출을 위해 준비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나온 지원 방식 => 전반적으로 관과 민이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열림' 회원들은 한 달에 만원 혹은 2만원씩의 회비를 내어 운영. 재단의 보조금은 2014년의 경우 2천만원 정도. 강사비 및 공간 임대료 등으로 사용

-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수원문화 도담도담(徒談徒談)

: 예술인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생산. 2012년 시작된 이래 해마다 2회에서 4회까지의 라운드 테이블 및 토론회를 열어 공동체 기반 예술활동의 지원 현황과 전망이나 자생과 공감을 위한 예술지원책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수원의 생활예술공동체 및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카. 안양문화재단

◎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 문화사업팀에서 축제, 아카데미,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진행

- 커뮤니티 프로그램 두 가지: 가족합창단과 어머니 연극수업인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은 대본이 책으로 나와 있고, 웹진 형태로도 가고 있음

- 시민 축제

: 안양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무대에 서는 날

: 사물놀이팀의 경우 30개가 하루에 무대에 서고, 발리댄스도 20여개가 하루에 공연

: 3일 동안 백 여개의 동아리가 여러 무대에 서는 행사

: 시민축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40여명 정도가 참여: 프로그램, 부스 선정 등을 하며 10년 이상 유지되어 옴

: 시민축제의 예산은 5억원 가량: 3~4십만 명의 참여 인원 추산

◎ 그 외 생활예술 지원 현황

-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 : 도심환경 개선, 조형물 등 시민, 관객과 소통하고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지원. 미술,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활용하여 안양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 환경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행사로 3년마다 개최
- 구석구석 마중 콘서트
 - : 문화향유 적은 시민을 위해 복지시설, 시장 등에 문화콘서트 진행. 시민이 원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삼덕공원, 동편마을, 안양국제유통단지공구상가 등지에서 많은 시민에게 공연을 제공

타. 오산문화재단

◎ 지원 현황

- 생활예술지원 사업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지원
 - : 2013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지원
- 생활예술공동체지원 사업
 -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사업 지원
 - :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 지원(이주민 풀뿌리 단체와 지역사회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

2) 경기도 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우수 사례

가. 담쟁이 문화원

◎ 역사 및 규모

- 2012년 11월 개원
- B1: 담쟁이 소극장
 - : 1층 식당/소강의실(10평)

- : 2층 북카페 ‘담쟁이 책 놀이터’
- : 3층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실, 강당(20여평, 30명 수용 가능)

◎ 주요 활동

- 공동체 상영 및 각종 세미나, 소모임 활동 공간 지원
 - : 매주 토요일 오후 독립영화 상영회
 - : 미디어 교육 및 각종 전시회 상시 개최
- 상주 단체
 - : 교육극단 틱톡(인형극단), 공연 관련 사회적기업 제이컴퍼니, 음악 밴드 누보공동체, 아하 체험마을, 지역신문 콩나물 신문

◎ 운영 및 특성

- 상근자 없음
- 각종 지역 동호회에 문화원 무료 공간 개방, 전시 및 각종 지역행사 장소로 활용
 - : 해외 ‘민중의 집’ 콘셉트
 - : 처음 일 년은 자체 강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으나 호응이 적어 폐지
 - : 다양한 지역 예술동호회의 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의한 자율적 강좌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 사이의 네트워킹은 없음
- 시민 문화공간, 지역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향
 - :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기획 및 재정 문제까지 해결 지향
 - : 협동조합이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주고 공간 활용
 - : 협동조합의 경우, 각자가 돈을 출연하기 때문에 운영에 동기 부여 가능

◎ 재정 및 지원 현황

- 현재 공적 지원 없음

- 건물 자가 소유, 카페 수익으로 공간 운영
- :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카페를 특성화한 수익구조 창출

◎ 지원 방향

- 생활예술공동체가 자생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 필요
- : 장기 저리 방식 또는 소액으로 여러 번 지원-예) 미소금융
- : 그에 대한 합리적 대출 상환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자산 기부
- : 이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 공동체 펀드 형성
- : 공동체 펀드를 통한 예산 확보 후 사업계획, 대출 상환계획을 심의 후 지원
- 시 금고 활용

나. 서종마을

◎ 역사 및 규모

- 2000년 '문화모임 서종사람들' 민간모임 발족으로 시작
- : 98년 양평 자연사박물관유치를 위한 예술인 모임이 계기
- : 초대회원 8명, 초대회장 민정기 화가
- 회원 300여명, 후원회원 70여명

◎ 주요 활동

- 우리동네 음악회
- : 클래식 및 국악 공연 위주
- : 2000년 4월 첫 공연, 이후 1, 2월 제외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정기개최
- : 어린이 500원, 어른 1000원의 관람료
- : 관람료는 유료공연문화를 심어주려는 의도

- : 매회 100~500여명의 관객이 찾음
- : 500여명에게 음악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북한강주말음악축제(매년 8월)
- :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연 준비 및 제작에 참여

- 우리동네 그리기전
- : 지역 원로작가, 아이들 작품 공동전시

- 우리동네 작가전, 공연기획교실 등 개최

- 회지 발간

◎ 운영 및 특성

- 동네문화로 인한 자치성 강화
- : 서종마을 특성 상 문화예술인이 많이 거주
- : 인구 10만 명 중 문화예술인 700여명이 양평에 거주
- :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품앗이 지향
- : 지역거주민들은 문화마을로서의 자부심 높음
- 특별한 공간 거점 없음
- :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활용하여 모임 운영
- : '서종음악당', 서종초등학교와 서종면사무소 2층 강당을 공연장으로 활용 (200여석)
- : 문화부 지원으로 서종면사무소 2층을 공연이 가능한 강당으로 리모델링
- 공연 '기획사'
- : 문화모임 '서종사람들'과 서종면 주민으로 구성
- 도시와 농촌 간 문화적 불평등 해소, 교양으로서의 문화, 생활 속의 문화 지향
- : 특히 다음 세대의 문화적 체험 향유에 중점을 둠

◎ 재정 및 지원 현황

- 회원(70여명) 회비, 특별후원(10여명) 회비
- 양평군 지원금 2000만원(연간)

◎ 지원 방향

- 소위 문화소외지역의 경우 이벤트성의 공연 기획이 아닌 자주 찾아가는 공연 기획 필요
- 단체 지원의 경우 지원금 상한선 및 관리항목을 정해줄 필요가 있음
: 제한 없는 지원은 단체 자립에 독이 될 우려. 자생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유휴공간을 민간에 개방해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
-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특성화하여 지원해야함

다. 옴팡

◎ 역사 및 규모

- 2012년 개원
- 회원 12명
- 기존 노동문제연구소 리모델링 : 건물 중 한 층 사용

◎ 주요 활동

- 지역미디어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한 달에 한 번 공동체 상영(매월 둘째 주 화요일)
: 미디어교육 모임 '청바지'
: 부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제작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의 모임
: 옴팡 내 영화 상영 및 미디어교육 기획/운영

- 기타 지역의 다양한 단체 및 동호회들이 공간 무료 이용
: 월 50~100명 이용
: 오카리나 배우기 모임, 마라톤 모임, 쿠바 세미나 모임 등
: 각종 인문교양 강좌 및 워크숍 개최
- 청소년 관련 사회적 기업 '나눔레몬' 사무실 공간 지원

◎ 운영 및 특성

- 정해진 대표자 없음
: '옴팡지기'라는 이름으로 회원 각자가 여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운영
: 회원들은 모두 생업 및 자기 활동 영역이 따로 있음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지향
: 평일(오전 11시~오후 7시), 주말 이용 가능
: 공간 개방을 통한 다양한 지역운동의 거점 역할 및 마을 공동체 지향

◎ 재정 및 지원 현황

- 회원들의 회비로 건물 월세 납부 및 공간 유지비 총당
: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에 공간이 위치하기에 가능
: 임대 보증금은 민주노총 부담, 월세만 받고 공간 운영을 일임하는 형식

◎ 지원 방향

- 생활예술공동체 간 네트워크 필요
: 인적 자원 DB 공유 및 상호 지원 체계 구축
- 공적 자금 지원 시 상환계획을 단체 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관의 간섭 없는 지원이 되어야 함
: 지원 단체의 자치성 확보가 관건
- 지원 주체 쪽 실무를 안정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체계 필요

라. 진접 문화의 집

◎ 역사 및 규모

- 2000년 개원
- 국장(조미자) 이하 상근자 4명
- 기존 읍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
 - : 1층 DVD 감상부스, 작은도서관
 - : 2층 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 문화연습실, 문화행복방, 문화나눔방
 - : 3층 문화관람실, 레크레이션실

◎ 주요 활동

- 20여개 동아리 활동
 - : 하루 이용객 200~300명
 - : 클래식, 서각, 한국무용, 사진 동호회 등
- 마을축제 '나와유' 개최
 - : 2011년 '구르는 예술' 프로그램이 계기
 - : 2011년 겨울부터 봄/가을 연 2회 개최(5월 5일 어린이날, 가을 부침개잔치)
 - : 'I & You 나와유', 'Come on Out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유'라는 두 가지 뜻
 - : 동아리 '나와유' 및 지역 단체 공동 기획 및 진행
 - :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봉사하고 즐기는 축제 지향
- 소식지 발송(3개월에 1회)
- <진접 우리동네 이야기> 발간: 시민문화예술지원 사업 '사람책 만들기 프로젝트'
- 참고 인문학 아카데미 : 지역 및 문화에 대한 공부 모임
- '참고속깊은대화'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공동체 의식 강화

◎ 운영 및 특성

- 문화의 집 회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두드러짐
 - : 성공적인 활동으로 관과의 관계에서 신뢰 구축
 - : 관에서 지원 외 운영에 대한 특별한 간섭 없음
- 부침개 축제의 경우 재료 등에 대한 지원을 따로 받지 않고 주민들이 준비
 - : 테이블과 같은 기본적인 하드웨어만 지원받음
- 지역의 삶과 사람을 녹여내는 생활문화공동체 지향

◎ 재정 및 지원 현황

- 시에서 연간 2억 지원 : 건물유지비, 상근자 인건비 포함

◎ 지원 방향

- 지역주민이 지역 문화활동가로 자리잡는 것에 대한 지원 필요
 - : 자원 활동에 대한 실비용 집행 등

3. 공동체 변화를 위한 생활예술공동체: 커뮤니티예술형과 마을만들기형

1) 커뮤니티예술형

A. 커뮤니티예술형의 필수 요소

- 커뮤니티예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생활예술가'의 필요성. 여기서의 '전문생활예술가'란 커뮤니티의 역사성, 사회성 등에 대한 전문성과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예술가를 의미하는 것
- '전문생활예술가'가 갖추어야 할 생활예술에 대한 이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생활예술이 전문예술의 하위범주가 아니다'라는 점.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나 생활예술에 있어 예술을 전공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술을 배우고자 할 때 이들을 가르치는 예술가들이 흔히 갖게 되는 오류 중의 하나는, 자신의 학생이 '예술가가 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임
-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가중심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생활예술을 바라볼 경우 생활예술을 하는 이들은 모두 '프로가 되지 못한, 미숙한 아마추어'로 규정될 뿐
- '전문생활예술가'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천 <문화바람>의 상근자들: <문화바람>의 상근자들은 '쉬무저'이자 '마허'⁸⁾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회원들을 위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문화바람의 프로그램들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면서도 회원들과 비공식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이들이 가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도 또 다르지만 문화기획자로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생활예술가'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음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도 "지역 전문성을 기반으로 문화와 일상을 매개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지평을 확장해낼 수 있는 창조적 일꾼인 '문화예술매개'를 양성

8) 로버트 퍼트남은 유대인의 언어를 빌려와 공식적 단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을 '마허(macher)'라고,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대화와 친교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쉬무저(schmoozer)'라고 부른다 (Putnam, 2009: 152).

하고 있다"⁹⁾는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있음. 여기서의 문화매개자 역시 지역에서 예술과 일상, 예술과 공동체를 매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

B. 커뮤니티예술형의 사례

- 경기문화재단의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커뮤니티예술형의 생활예술공동체라 할 수 있음.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는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하고 싶은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기관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단체이거나 이들과 더불어 구성된 컨소시엄팀
- 문화살롱 공의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 순수창작집단 '스폰지'의 예술가들이 2014년 수몰되기로 예정된 포천의 교동 마을에 들어와 석 달 넘게 거주하면서 수몰 이후 근처 20미터 정도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강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문화기록관을 만들고 동영상 제작하여 이 지역이 농촌체험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작업
- 문화살롱 공의 박이창식 작가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쳤고 외부에서 온 예술가로서 오해를 받기도 하는 상황을 겪었지만 수몰지구 이주민들의 심리적 상실감과 공동체 붕괴 등에 대한 이해 및 치유를 위한 방법론 등을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지속적 설득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동시에 마을문화기록관을 세우는 데에까지 이르렀음. 기존의 '커뮤니티 아티스트'가 단기간에 자신의 예술 작품 완성에 집중하면서 마을 거주민들과의 소통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았던 점과는 상대적으로 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마을주민들 역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상과 사진, 또한 글쓰기와 같은 예술 형식을 통한 기록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심리적 치유를 받기도 했음
- 큰들문화예술센터: 사천/진주에 있는 전문 풍물 마당극 공동체 큰들문화예술센

9) 박창욱, 「세종문화회관, 청년일자리 창출 나서 - 2013 문화예술매개자 양성사업 참여 청년 모집」, <머니투데이>, 2013년 3월 19일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1913094910253&outlink=1> (2013년 9월 5일 검색).

터. 1년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공연. 전문생활예술가들이 마을에서 풍물 강습을 하고 10월에 공연하는데 367명 정도 참가

- 이 숫자가 구체적인 이유는 제일 큰 공연장 무대에 참여자들이 다 섰을 때 한 사람도 가리지 않고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 매년 그 숫자로 공연하면서 무대 환경 또한 최적의 상태로 마련하여 공연. 공연 참가자들의 가족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고 공연 이후에는 공연 촬영 영상을 참가자 모두에게 배포함
- 회원들 중에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영상부터 본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 집안의 가보이고 큰 자랑거리. 곧 예술을 통해 자존감을 되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음. 한 해의 행사가 끝나면 해산하고 그 다음 해에 새로 회원을 모집하여 신입회원도 있고 구회원도 있는 방식으로 운영 중

C. 커뮤니티예술형의 지원방식

- 커뮤니티예술형의 경우 전문생활예술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정책적 범위 내에는 아마추어 예술진흥은 매우 작은 규모로 책정되어 있고, 또 전문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니만큼 생활예술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음
- 그러나 전문생활예술가는 동시에 전문예술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문예진흥기금 등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짐. 무대예술 혹은 전시관 예술 등 기존의 예술 형태만으로 전문예술가들의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생활예술과의 결합은 예술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확장이라는 면에서도, 또한 전문예술가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도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음
- 전문생활예술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야 할 지원 방식은 관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전문적 워크샵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임. 일종의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매개자로서 기능하는 전문생활예술가들에게 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생활예술공동체 성원 내의 관계 문제

나 전문생활예술가와 생활예술공동체 성원간의 관계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워크샵 프로그램 등의 간접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2) 마을만들기형

A. 마을만들기형의 사례: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 남양주 진접 문화의집 '나와유': 동호회 활동은 장르간의 영역 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장르 구별을 없앤 주민 활동을 진접 문화의 집이 시작. '나와유'는 개별 동아리 활동가, <문화의집> 프로그램 참여자,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 대표적 행사로 '부침개 축제'. <문화의집>에서 참가 신청을 받고 테이블 정도 제공하며 홍보나 재료, 도구 등은 참여자들이 준비함. 서른개 팀 정도 참가하는데 이 축제에 와서 구경하고 먹는 이들은 3천여 명 정도. 헬스클럽 아줌마들의 부침개는 '웰빙 부침개', 양파 조림과 같이 먹는 부침개를 만들어서 인기를 끈 부침개 팀 등
- '나와유'는 남도민요 동아리, 다육이 동아리, 동네반찬 동아리 등으로 분화되고 있음. 반찬 동아리는 이주 여성과 같이 음식 만들기를 하기도 하고, 반찬을 판매하기도 함. 동네여행상품을 만들기 위해 공부 모임을 만든 팀도 있음
- 이후 진접 문화의집 사업들도 다양화됨: '나와유' 회원들이 청소하고 페인트칠까지 하면서 개조한 창고는 주민활동 공간 아지트가 되고 '들락날락' 카페를 사용하는 '동네 책다방 프로젝트', 한 달 2백만원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수익의 10 퍼센트를 문화의집에 기부하기도 하는 '문사이 베품시장', 문화의집 벽을 활용하여 개인 전시, 동아리 전시, 지역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3.3' 등이 있음
- 진안 문화의집: 귀촌 인구가 많아지고 원주민과의 갈등이 증가하자 주민 강사 프로그램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함
 - 1년차: 진안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살펴보는 '지역 알기 프로그램'
 - 2년차: 마을 숲 알기
 - 3년차: 동네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동네 프로그램'

- 문화의집은 강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되 ‘걷는다/ 간식은 지역 산물로 먹는다/ 동네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등의 원칙을 주민들이 세워 스스로 진행하는 것으로 삼음

B. 문화의집 생활예술공동체 사례의 시사점

- 농산어촌의 문화 공간은 문화의집이 유일한 경우 많음. 고령화 인구가 많고 농사 짓는 고된 일로 몸이 힘들어지므로 요가 프로그램 등을 선호함. 곧 마을의 특성, 주민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맞추어야 함. 예를 들어 ‘캐주얼 생활문화 강좌’ 등을 단발성으로 여는데 동네 세탁소 아저씨가 다림질을, 회원집 아주머니가 화분 키우는 법을, 미장원 사장님이 혼자 드라이 하는 법 등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함
- 문화의집이 참여자를 일방적으로 강좌의 수혜자로 보지 않고 쌍방교감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주민들을 위한 공헌적 활동을 문화의집의 의도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발의하여 진행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바로 주민들이 주인되는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임
- 또한 주민들이 강사가 되어 진행하는 강좌들은 주민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지역 내에서의 주민의 역할에 대해 발상 변화를 가져다 준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됨
- ‘부침개 축제’도 일종의 창작 행위라 할 수 있음. 일본 ‘우타고에 합창제’의 합창 공연에 참가자 모두의 집중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각 지역의 작품들이 지역의 고충과 애로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생활예술’은 ‘생활’에서 우려나온 예술 행위여야 하는데 농촌 지역에서의 부침개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해먹으면서도 가정별로 특색을 갖는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성이 높은 창작 행위임

C. 마을만들기형의 지원 방식

- 마을만들기형 생활예술공동체는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과 같은 취향 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띄고 있는 것임. 마을만들기형은 동네 혹은 마을이라는 공

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급 예술을 애호하는 취향을 가지고 장르별로 모이는 성남 사랑방문화클럽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해야 함

- 마을만들기형 생활예술공동체야말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동체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획부터 실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소한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4. 경기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1) 선행 활성화 방안 조사

- 생활예술공동체 관련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표 8>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음

<표 8>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목록

연구 년도	연구제목	발주기관	분류
2008	문화클럽 조성 및 활성화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발적예술
2010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	성남문화재단	자발적예술 마을만들기
2011	음악교육 및 향유기반조성연구	인천문화재단	자발적예술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커뮤니티예술 마을만들기
2012	생활예술지원정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자발적예술
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발적예술

- 첫째, 「문화클럽 조성 및 활성화연구」는 “아마추어 및 준전문적 수준 문화관련 모임의 연합체”를 ‘문화클럽’이라고 명명하고, 유형을 도시형, 취약지역형(농/산/어촌, 지방소도시)으로 나누고 단계별 활성화 방안을 <표 9>와 같이 제시함¹⁰⁾
- 자발적 예술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고 관련 실태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시형과 지리적 환경으로 동아리 구성이 어려운 취약지역형에 대한 활성화 접근이 다를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됨

10) 애초 유형 분류에는 ‘직장형 문화클럽’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 더불어 취약지역형이 풍물, 지역전통문화관련 활동이 주요한 특성이고 마을축제와 같은 참여형 문화활동 중심이라는 점이 특화된다는 차별성이 경기도의 농/산/어촌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9> 유형 및 단계별 문화클럽 활성화 방안¹¹⁾

	시작기	안정기	정착기
도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성, 활성화 지역기반동아리와 시설 동아리의 모집 활동기반 조성 공간/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클럽 유도 지역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문화자원봉사 확대 동아리의 자치성과 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자원봉사 시스템구축 지역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확립
취약 지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성, 개발 동아리 조성을 위한 강좌 개발 성인대상 문화예술 육성 확대 일상 속 문화예술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강조 학교, 지역단체와 지역사회기여활동 공조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자원봉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에서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문화활동을 매개로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

- 둘째,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은 기초지역단위에서 관심커뮤니티 (자발적예술형), 지역커뮤니티 (마을만들기형)를 동시에 추진하는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음
- 성남문화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랑방문화클럽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성남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데 있어 중요한 양 대 문화프로젝트임을 확인하였음
- 생활예술공동체 관점의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생활예술지향’, ‘커뮤니티 지향’, ‘사회공헌 지향’의 문화비전 연구개발과 공유가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인력육성, 법제도, 공간, 지원조직을 통합한 지원체계를 제안하였음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클럽 조성 및 활성화연구」, 2008. p52

- 지역정책에서 공공적 의미를 가지고 생활예술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예술형 공동체와 마을만들기형 공동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던 연구사례임

<표 10> 성남문화도시 활성화 방안

<p>3자원 포지셔닝</p>			
<p>구성요소</p>	<p>문화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생활예술지향 비전 우리 커뮤니티 지향 비전 도시 사회공헌 지향 비전 	<p>문화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역 커뮤니티 프로젝트 	<p>문화지원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성체계 법·제도적 지원체계 공간 지원체계 지원조직 체계
<p>추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비전 연구개발 사업 문화비전 공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예술학교 사업 생활예술지일법 및 문화통화 활성화 사업 생활예술센터 사업 문화사랑 거버넌스 사업

- 셋째, 「음악교육 및 향유기반 조성」은 생활예술공동체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형과 자발적예술형이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지를 제안한 활성화 방안 모델로서 의미 있는 연구 사례임
- ‘음악’이라는 특정 장르에 맞추어 활성화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세분화된 생활예술 활성화 방안 고려 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전문예술가와 생활예술가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전문예술가와 생활예술가와 협력하고 성장하여 음악축제의 활성화까지 연결되는 진화모형을 제시하였고, 지원 공간설계에 있어서도 기

초형과 진화된 통합형 두 가지로 제안되었음

<그림 7> 인천 음악정책 활성화 방안¹²⁾



- 넷째,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에서 커뮤니티예술이나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공동체의 관계망의 특성에 따라 다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였음

<표 11> 관계망 특성에 따른 지원 전략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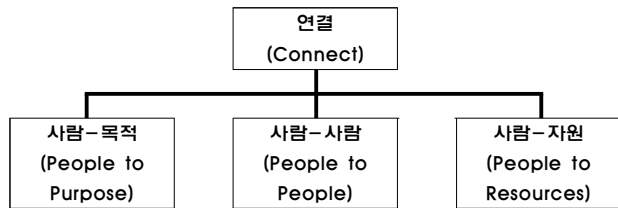
공동체 형태	강한 공동체	약한 공동체
특징	내부규범 핵심활동가 공유된 인식(절박함) 공동체 비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심 중심 주체 부재 공유된 인식 미비
예술에 대한 인식	생활예술	서비스
사업성과 지속가능성	높음	낮음
사업목표	예술적 활동을 통해 활동적 삶을 만들어 내는 것	예술적 활동을 통해 강한 연결 공동체의 특징을 만들어 내는 것
지원전략	활성화 시키기	씨앗뿌리기

12) 인천문화재단, 「음악교육 및 향유기반 조성 연구, 2011, p 164

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2011, p97

- 이미 역량을 가진 공동체는 ‘활성화’ 시키는 전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역량이 미비한 공동체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우선 키우는 것이 필요함
- 다섯째, 「생활예술지원정책 방안연구」는 최초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생활예술지원정책을 다루었다는 것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연결모형’이라는 인적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림 8> 딜로이트 컨설팅의 연결모형¹⁴⁾



- 연결모형을 통해서 중앙집중적인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People)과 목적(Purpose)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자원(Resource)을 연결시키는 관계지향적인 방법을 시도하였음
- 생활예술정책을 결국 시민이라는 소중한 인적자원을, 생활예술을 통해 계발시키는 것으로 파악하여 세 가지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표 12> 3차원 생활예술 활성화 방안¹⁵⁾

비전 연결 차원 (People to Purpose)	활동 연결 차원 (People to People)	지원환경 연결 차원 (People to Resou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 비전 연구방안 • 생활예술 비전 공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 단체 네트워크 방안 • 생활예술 축제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 매개자 육성 방안 • 생활예술 법제도 지원 방안 • 생활예술 공간 지원 방안 • 생활예술 지식정보화 지원 방안

14) 이 컨설팅 모델은 Deloitte Research가 2007년도에 작성한 「Connecting People to What Matters」에 수록되어 있음.

15)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예술지원정책 방안연구」, 2012, p168

- 여섯째,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연구」는 인력·공간·네트워크·예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동호회 네트워크의 동적 요소를 고려하기 보다는 허브 조직의 정적인 지원 방안 중심으로 제안되었음

<표 13> 동호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¹⁶⁾

활성화 차원	활성화 세부방안	내 용
전담인력확보 인력의전문성제고	주관기관 전담인력확보	기초네트워크: 1명 이상 광역네트워크: 1명 이상
	지원기관 전담인력배치	기초네트워크: 1명 이상 광역네트워크: 1명 이상
	주관지원 담당자전문성제고	담당자의 문화역량강화 담당자의 사업역량강화
공간확보와 제공	공간확보	연습모임공간, 연습발표공간
	활동공간의 최적화 이용시간확대	방음벽, 기본악기, 기자재, 사물함 개방시간 무제한, 늦은 밤까지
	전용임대 공간확보	임대공간 네트워크 전용으로 사용 네트워크 사무공간 활용
	주관지원기관사무국 사무공간 확보	주관기관 사무공간 지원기관 사무공간
동호회간 연계활동지원	1·2단계 활동지원	1단계: 실태조사, 친교활동 2단계: 정보공유, 컨설팅, 네트워크 참여
	3단계 활동지원	공동연습 및 발표회 축제지원
예산	운영예산	기초지자체수 × 평균예산
	중앙·지자체	7:3(초기), 5:5(안정화 이후)

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연구」, 2014, p168~187 요약

2) 추진 방향

<그림 9> 경기 생활문화진흥 차별화 포지셔닝



경기도 생활예술 = 문화예술교육 + 자발적예술 + 커뮤니티예술 + 마을만들기

- 예술동호회 중심으로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이 추진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예술, 마을만들기 등 이미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연계 혁신형 예술들이 통합된 형태로 지원할 경우 차별화될 수 있음
-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기존 문화예술교육 및 커뮤니티예술 지원체계가 함께 활성화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며, 자생적 예술 진흥 및 마을만들기 연계 추진을 통해서 차별성을 확보함
- 이러한 연계추진을 통해서 생활문화진흥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안적 생활예술지원 체계(사람/조직, 공간, 프로그램)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경기문화재단의 차별적 문화정책 콘텐츠를 확고히 함
- 민선 6기 경기문화재단이 수립 중인 미션, 비전, 핵심가치 모두 생활문화진흥 관점에서 정립되어 있어 새로운 경기문화재단의 비전 체계는 생활예술공동체를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됨

- 미션: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
- 비전: “창조경기문화의 중심, 경기문화재단”
- 핵심가치: 창조, 역량, 이음, 활성화, 공동체

<그림 10> 민선 6기 경기문화재단 비전체계

①창조	새로운 경기도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진취적이고 활달한 문화적 환경
②역량	31개 시군의 도민이 스스로 키우고 가꾸는 시민문화와 자치역량
③이음	경기도와 문화재단 간의 협력 네트워크 및 지역 문화정책 거버넌스
④활생	경기 동서남북이 소외·격차없이 문화로 따뜻해지는 활성화
⑤공동체	행복한 생활예술공동체 운동으로 하나되는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에서 새롭게 정립한 창조, 역량, 이음, 활생, 공동체의 다섯 가지 핵심가치를 생활예술공동체 유형분류와 연결시켜 보면 네 가지 유형별로 다섯 가지 핵심가치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생활예술공동체 유형별 활성화는 경기문화재단 비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전달 체계가 될 수 있는데, 네 가지 유형별 사람/조직, 공간, 프로그램 차원에 서의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생활예술공동체 유형별 활성화를 생애주기별, 소득별, 지역별 계층 분류와 연계 시키면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을 위한 융·복합형 지원 정책 방안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별도의 세부 실행 방안이 후속연구로 필요함

3) 유형별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교육형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형 생활예술공동체의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용인문화재단의 ‘시니어 소통 한마당’
 - 군포문화재단의 ‘군포나누미 학교’
 - 부천문화재단의 ‘아트밸리사업’
 - 하남문화재단의 ‘하남시민 노래교실’와 ‘청소년 연극학교’
 - 고양문화재단의 ‘어울림 문화학교’와 ‘아람문에 아카데미’

- 문화예술교육형 생활예술공동체는 기존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항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진흥에 있어서 주요한 정책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 특히 군포문화재단의 ‘군포나눔미 학교’의 경우, 시민들 누구나 강의를 열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강좌라는 측면에서 ‘대항적’ 모델로 가능함
-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00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후 예술강사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소외계층 중심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되었으나 대안적 삶의 방식 창출에는 미흡하였음
- 특히 민선 6기 경기문화재단의 전략목표로 검토되고 있는 “스스로 가꾸는 시민 문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역량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소외계층 지역, 문화격차 해소 및 시민들의 문화상상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 및 생활여가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문화예술의 능동적 주체로서 변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문화예술교육 수용자인 시민 관점의 문화예술교육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 장르 중심의 문화예술강사를 넘어 시민의 생활영역 혹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전문가의 육성을 의미함
- ‘군포나눔미 학교’는 강사로 참여한 회원에게 자원봉사 실적 등록이나 강의경력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내용 또한 일상성이 담보된 강좌 개설을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 둘째, 경기 지역의 광역단위, 기초단위의 지역문화진흥 연계형 문화예술교육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생활예술연계 정책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음

<그림 11> 문화예술교육형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 셋째, 경기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자치, 복지, 종교, 학교시설)을 생활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생활문화센터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 넷째, 문화예술교육과 연계된 생활예술공동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학교교육,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시민 스스로 성장하는 주제적 문화역량 육성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확대해야 함
- 부천시의 경우 청소년, 가족, 다문화 등으로 나누어진 지역 내 영역 간의 협업 혹은 연계를 추진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과 연계된 생활예술공동체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각 기관들의 협업이 모색될 전망이다

자발적예술형

- 자발적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의 의미는 시민이 주도하는 아마추어 예술의 실체와 의미를 가시화하여 전문예술가 중심의 예술정책과 시민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병행 기획하고 구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 2006년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향 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예술지원정책방향연구 등 자발적 예술과 관련된 정책 연구들

- 은 이미 진행된 바 있음
- 2014년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주관한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전국생활문화동호회 축제와 같은 자발적예술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실행됨
- 이밖에도 경기 지역의 자발적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는 다음과 같음
 - 용인문화재단의 '시민 문화예술 지원사업'
 - 부천문화재단의 '솔안(소란)스러운 우리마을'
 - 화성문화재단의 '화성시 문화예술동아리'
 - 수원문화재단의 '수원 문화클럽' 등이 있음

<그림 12> 자발적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 자발적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시민들이 자신의 기존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예술활동을 통한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다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자발적예술형 문화예술공동체를 견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역문화창조인력'들을 통해서 "스스로 가꾸는 시민 문화"의 구현이 가능할 것임

- 둘째, 자발적 예술 관련 연구자, 정책가, 기획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연계망들이 활성화해야 하는데 수평적 지식공유 및 창출이 가능한 실행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 바람직함
- 수원문화재단 '수원 문화클럽'의 경우 수원에 적합한 방식의 자발적예술형 생활 예술공동체를 설계하기 위해 관과 민이 장기적 협의를 통해 지역에 맞는 생활 예술공동체 설계를 위해 다각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셋째, 자발적 예술을 비롯한 지역문화진흥 관련 사업 기획 및 실행을 위한 '(가칭) 생활문화팀'을 경기문화재단 안에 신설하여 차별화된 자발적 예술 및 생활 문화 정책 방안을 마련함
- 넷째,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협력하는 동시에, 경기도의 공사립 뮤지엄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활성형 자발적 예술 진흥방안도 추진함
- 다섯째, 생활예술 단체나 동아리 공간에 전세금이나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장기 저금리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가칭)마중물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여 자발적 예술에 적합한 자발성과 책임성을 모색함
- 이는 인천의 '문화바람'이나 부천의 '담쟁이 문화원'과 같은 자생적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바 있는 것으로, 자발성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음
- 여섯째, 경기도 생활문화진흥을 상징하는 자발적 예술 프로그램 브랜드를 창안하여 정책 홍보 및 생활예술동호회 축제를 개발 및 운영함(예, 생활문화유량단, 생활문화토요리그 등)

커뮤니티예술형

- 커뮤니티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는 정주형 지역예술가 육성 등 커뮤니티예술이우 리사회의 주요한 예술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예술을 위한 예술 생태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함
- 경기 지역 커뮤니티예술형의 사례로는,
 - 기초 단위 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하남문화재 단의'똥자루 무용단' 등)
 - 군포문화재단의 '파출소가 돌아왔다 시즌 2'
 - 안양문화재단의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있음
- 경기문화재단은 2004년부터 지역 연계형 공공미술사업을 지원하는 것으 로 창작촌 네트워크 포럼 운영, 공동체 기반의 예술담론과 비평 지원 및 이와 연계된 출판 및 교육 활동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음
-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와 커뮤니티예술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서 커뮤니티예술이 지역문화진흥의 주요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사람/조직, 공간, 프 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13> 커뮤니티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 첫째, '지역문화창조인력' 정주형 지역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이미 성공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다사리 문화학교를 지역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통섭교육 기 관으로 발전시킴
- 둘째, 청년기획자를 위한 다양한 지역연계형 예술융합 일자리(예, 현장형 문화기 획자, 지역재생 문화기획자, 도시공간 큐레이터, 유희 공간 공유매개자, 마을축 제 예술감독 등)들을 개발하고 확산시킴
- 셋째,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주관하는 문화예술팀의 역할을 기초 예술진흥과 동시에 커뮤니티예술진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함으로써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정책 방향을 차별화함
- 넷째, 수원시 옛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부지에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예술 융합형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전문예술가의 역량을 육성하는 공간 인프라로 활용함
- 다섯째, 의정부에 새로 조성하는 북부사무소는 경기 북부 지역의 특화된 예술 니즈에 맞춤형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에도 기여하도록 함
- 여섯째, 경기도 기초문화재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직형 지역활성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기도를 지역연계형 예술프로젝트의 메카로서 자리 잡게 함
- 일곱째, 실천형 예술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커뮤니티와 예술'에 대한 이론과 사 례를 개발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패러다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마을만들기 형

- 마을만들기형 생활예술공동체는 그간 축적된 경기문화재단의 정책역량을 총괄하는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데,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문화예술 교육, 커뮤니티예술, 자발적예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형 생활양식 개선활동으로서 일본의 ‘마찌즈쿠리’ 등 국가별 사례들도 다양하게 존재하였음. 최근에는 우리나라 도시 정책의 주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따뜻하고 복된’ 마을만들기가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 주도형인 마을만들기 모형을 제시하는 동시에 예술융합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원 방향이 필요함

<그림 14> 마을만들기형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 첫째,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예술 지원을 통해서 육성된 정주형 지역예술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결합하여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기업 형태의 법인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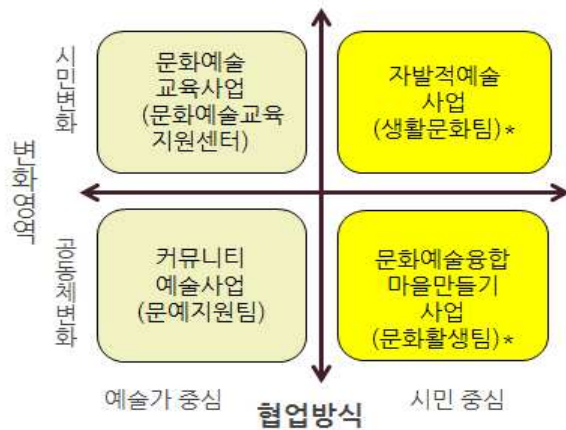
- 둘째,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지역문화진흥 관련 사업 기획 및 실행을 위해서 ‘(가칭)문화활생팀’을 경기문화재단 안에 신설하여 지역연계 문화활생 프로젝트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함
- 셋째,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생활문화시설은 예술동호회 지원 시설을 넘어서 마을공동체 문화공간(마을 공방, 마을 부엌) 등 조성하여 일자리 연계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역할도 포함함
- 대표적인 사례로는 따복공동체의 모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수원시 조원동 ‘대추동이 문화마을’을 들 수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아파트 단지 주변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시장 상인들까지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마돈나돈가스’를 운영하고 이 가게의 운영 수익은 마을 환경 개선과 복지 및 주민 교육 등에 쓰임
- 시흥시 정왕동 ‘참새방앗간’도 방치된 아파트 관리동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 세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의견을 모아 방치되었던 공간이 4백여 명의 주민이 공동육아, 영화상영, 취미교실 등 1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됨. 취미교실에서 만들어진 뜨개질이나 퀼트 등은 공동체의 수익금으로 적립
- 넷째,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재생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색하는 동시에, 복지, 환경, 교육 영역과의 문화예술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함
- 시흥시 하중동 ‘참여슬퍼생학습 마을학교’는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마을로 이곳에서는 공부방 및 북카페, 마을 강좌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다섯째, 경기도 민선 6기 비전인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이 문화중심의 전략인 만큼 마을만들기에 있어서도 문화예술기반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문화예술이 삶과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직한 경기문화정책 실현

4) 추진체계

추진조직

- 네 가지 생활예술공동체 유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조직과의 연계와 동시에 팀 신설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경기문화재단의 생활예술지원에 방점을 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음

<그림 15> 생활예술공동체 담당조직



- 우선 문화예술교육형 생활예술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은 기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커뮤니티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는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지원팀이 담당할 수 있음
- 자발적예술형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생활문화팀이, 마을만들기형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가칭)문화활생팀 신설이 필요함
- 경기문화재단의 네 가지 유형의 생활예술공동체 담당조직은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및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거점 기관 및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함

법제도

- 이미 경기도에서는 생활예술공동체 관련 법체계가 아래와 같이 다수 제정되어 있는데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문화진흥법과의 연계 하에 기존 조례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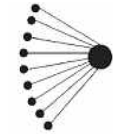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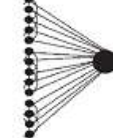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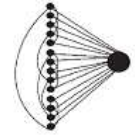
- 경기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
-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 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생활예술공동체 관련 조례 재검토 과정에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구체적인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 기존 재단 예산 체계로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 생활문화진흥을 위해서 (가칭) 생활문화진흥기금, 문화활생기금과 같은 별도의 기금 마련 노력이 필요하며 복지, 평생교육, 마을만들기 등 관련사업과의 협력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5)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¹⁷⁾

- 생활예술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육성하려면 여러 주체들의 자생력을 육성해야 하는데 예산 지원만으로는 이러한 자생력을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활예술공동체 관련 지식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네트워크의 지원이 생활예술을 위한 협력망의 주요한 역할로 인식되어야 함
- 경기문화재단은 생활예술 공동체의 지식파트너들과 공유 가치를 생성하고 공유함으로써 관련 정책지식 생태계의 자기조직화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경기문화재단이 허브 역할을 하는 생활예술 공동체 지식 네트워크는 허브와 노드(네트워크 참여자)간의 강한 연대가 형성되는 동시에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도 자기조직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함
- 경기문화재단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참여자들끼리의 관계를 맺어주고 신뢰를 구축하여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생활예술 공동체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게 지원함
-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협력과 신뢰를 얻음으로써 정책지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동시에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분야의 실천 사례와 지식들이 풍성해지고 관련 정책지식 생태계도 활성화 될 수 있음
- <표 14>를 통해서 생활예술공동체를 위한 지식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세 단계로 제시해 보았는데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운영으로부터 시작하되 점차로 생활예술 주체들 간의 자발적 협력망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함

<표 14> 생활예술공동체를 위한 지식 네트워크의 운영 방안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네트워크 형태			
네트워크 효과성	낮음	중간	높음
지식공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경기문화재단 주도의 공식적 회의체 활동 등 • (수직적) 정기 세미나, 공연 프로그램 중개사업, 공동제작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경기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재단 주도의 소그룹 형성 등 • (수직적) 맞춤형의 찾아 가는 재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및 문제해결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지역문화재단 및 생활예술 주체 간의 자발적 '학습 조직' 운영 등 • (수직적) 분산형 지역 리더십 육성, 종합 지식 리소스센터구축
네트워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약한 결합 • (수직적) 재정지원을 전제로 일대일 약한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핵심조직의 지원으로 그룹별 결합 • (수직적) 증가된 재정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일대일 강한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하부 조직 간의 자발적이고 강한 결합 • (수직적) 안정된 재정지원, 종합지식서비스 제공으로 강한 결합
공유지식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공연프로그램 정보 등 형식적 중심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매뉴얼 등 형식지 및 운영 노하우 등 일부 암묵지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매뉴얼 등의 형식지 및 자생적 학습조직을 통한 깊이 있는 암묵지 공유
참여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조직의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하는 거래적 참여 • 관련정보 수집을 위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지원 획득 및 관련 정보 수집 • 하부 조직의 사업적 필요에 의한 자발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만족과 자기 성장을 위한 참여 • 공유 가치에 몰입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들 간의 지식공유 기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공유를 통한 혜택을 체험하고 네트워크의 필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간의 학습을 통해 지식생태계의 자발적 성장을 추진

- 지식공유 네트워크 운영체계를 제안하기 위하여 <그림 8>의 딜로이트 컨설팅의 연결(Connect)모형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연결모형은 생활예술공동체의 구성원(사람)들이 목적,사람,자원과 연결함으로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함

17) "강주희, 전수환,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지식공유 네트워크 운영방안 - 전문문화관련협회 사례', 『예술경영연구』 제14집, 2009."을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맥락에 맞춰 수정 제안함

○ 첫째, 구성원과 목적을 연결한다는 것은 지식공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생활예술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의 전략적 방향과의 정렬(Alignment), 정체성,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적 방향과의 정렬 : 생활예술공동체의 전략적 방향과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지식공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열정을 갖고 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네트워크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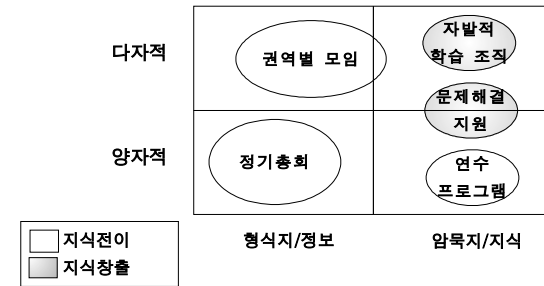
- 정체성 : 각 생활예술공동체는 주어진 역할에 헌신하고 있는가? 생활예술공동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소속감 : 생활예술공동체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가치 있는 방향으로 생활예술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끌고 있는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공동체를 복돋우고 있는가? 공동체들 간의 연대감과 믿음을 키우고 있는가?

○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는 생활예술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목적을 제시해 주고,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고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장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장을 통해서 현장 이슈를 논의하고 공동 목적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원하며 선도해야 할 것임

○ 둘째, 구성원과 구성원을 연결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해서는 양자간.다자간의 관계(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 협력학습 등이 일어나는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제와 사람간의 연결방법을 지식의 형태와 참여주체 간의 관계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 16>과 같음

<그림 16> 지식공유 네트워크 체계¹⁸⁾



○ 지식 네트워크의 활발한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생활예술공동체에 내재한 문화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방해요인에 대한 점검과 생활예술공동체 내 소통 수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방해요인에 대한 점검 :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식공유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는 생활예술 주체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는가? 지식공유를 방해하는 갈등이나 지식공유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경기문화재단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 소통 수준에 대한 확인 : 지식공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생활예술 주체 간의 열린 소통, 정직한 소통이 격려되고 있는가 ?

○ 경기문화재단은 이러한 방해요인 점검을 통해서 소통을 가로막은 문화적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방해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셋째, 구성원과 도구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경기문화재단이 생활예술주체간 지식공유를 통해서 실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원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함

18) Dyer, J. H. and Nobeoka, K., Creating and Managing a High-Performance Knowledge-Sharing Network : The Toyota Cas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 2000, p.345-367. p.360, 생활예술공동체 맥락에 맞게 재구성

- 여기서 자원이란 현장 업무의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테크놀로지, 도구(tools), 자본,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구성원과 자원의 연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음
 - 물리적 재정적 지원환경 :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집중하고 협력해서 지식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가? 경기문화재단은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지식을 가졌는가?
 - 기술적 지원 : 공동체 구성원들이 협업하고, 협력하여,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수단, 시스템을 가졌는가?
 - 시간과 에너지 :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식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가?
- 지식관점에서는 경기문화재단 차원에서 생활예술공동체를 위한 각 지역별 우수 사례, 콘텐츠 공유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식맵을 만들어 지식을 축적한 후 지식자원원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음
- 지식생태계 관점에서 온라인을 통한 자원 연결 사례로는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 사이트¹⁹⁾, 삼성경제연구소(SERI) 사이트²⁰⁾, VAN 사이트 등이 있음
-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지식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물리적 지원환경, 재정적 지원환경, 기술적 지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함

19) www.kosen21.org

20) www.seri.org

III. 결론: 요약 및 시사점

-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예술 및 생활예술공동체의 범주를 설정하고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경기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있음
-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진은 생활예술공동체의 범주를 각각 생활예술교육형, 자발적예술형, 커뮤니티예술형 및 마을만들기형으로 나누었고 이 중 공동체 변화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예술형과 마을만들기형 생활예술공동체의 특징과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음
-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는 이 네 가지 범주의 예술형이 통합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경기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던 문화예술교육 및 커뮤니티예술 지원체계가 활성화될 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술 체계가 탄탄해질 것이며, 자발적예술형과 마을만들기형의 연계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을 통해 관심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음
-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은 네 범주별로 사람/조직, 공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생활예술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생활예술공동체의 위해 특화된 공간조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방안들이 도출되었음
- 생활예술공동체의 활성화는 기존 재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별도의 예산확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가칭)생활문화진흥기금, 문화활생기금과 같은 별도의 기금 마련 노력이 필요하며 복지, 평생교육, 마을만들기 등 관련사업과의 협력체계를 수립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임
- 생활예술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이외에 지식네트워크의 필요성, 발전단계, 운영 방안을 생활예술공동체의 구성원(사람)들이 목적.사람.자원과 연결함으로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 관점에서 제안함
- 민선 6기 경기문화재단 비전 수립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창조, 역량, 이

음, 발생, 공동체라는 핵심가치는 네 범주의 생활예술공동체가 추구하는 비전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바, 네 가지 범주의 생활예술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조직 구조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생활예술교육형: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커뮤니티예술형: 문예지원팀
- 자발적예술형: 생활문화팀
- 마을만들기형: 문화활생팀

○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어도 지원 때문에 공동체 내에 균열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또한 자발성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원상의 원칙이 필요함

○ ‘열린 결정권’의 원칙: 문화재단 등 사회공헌이라든지 축제 등 미리 정하지 말고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생활예술공동체와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협의해서 정한 사업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열린 결정권’을 주는 것이 중요.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으나 그 실패는 매우 값진 열매가 될 것이고 점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얻는 것도 많을 것임

○ ‘경연 지양’의 원칙: 문화부의 ‘전국생활문화클럽축제’에서 ‘우수 생활예술공동체’를 뽑거나 예선을 거쳐 통과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는 방식의 경연은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을 가르게 되고 경연에서 진 팀 내부에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논의가 발생함. 이럴 경우 점점 기능과 수준이 강조되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시됨. 결국 잘 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진입장벽이 생김. ‘즐기고 나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수평적 소통구조’의 원칙: 참여자들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때 예술 혹은 문화 행위는 매개가 될 수 있음. 앞서 언급한 부침개나 김장, 빨래터 등에서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생활예술 공동체 내에서의 수평적 소통구조를 위해서는 예술이나 문화 행위가 부르디외가 이야기하는 ‘구별하는 자본’으로서의 ‘문화자본’이 아니라 ‘소통하게 하는 자본’으로

서의 ‘사회자본’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임

○ 생활예술공동체에 대한 평가 지표상의 원칙: 행사 횟수나 참가 인원, 예산 규모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야 함

1. 공론장 형성 능력
2. 의결과정의 민주성
3. 토론 간담회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 여부 -> 지역사회 기여도

○ 또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지원 대상 공동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전문 심사위원단 구성도 중요한 관건임. ‘평가 중심’이 아니라 ‘선정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네 범주의 생활예술공동체를 위한 지원 방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 중에 네 범주의 생활예술공동체 유형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시범 사업 등을 통해 도출되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주희, 전수환,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지식공유 네트워크 운영방안 - 전국문예회
관련합회 사례', 『예술경영연구』 제14집, 2009.

경기문화재단, 민선6기 경기문화재단 뉴비전(안), 2015

구자인, '마을만들기의 네트워크, 그 특성과 방향',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사이넴
어, 결핍은 네트워크로 메운다」, 국토연구원, 2014.

김동언, 조지연, 엄국천, '커뮤니티 아트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디지털디
자인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4.

김세훈, 「국내 문화법제 현황 및 과제」, 한국예술경영학회 제16회 학술심포지엄 자료
집, 2009.

김정이, '18세기 조선의 문화예술 창조자들',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조성을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 성남문화재단, 2008.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전국 25곳 본격 추진', 5월 25일 보
도자료, 2011.

문화체육관광부,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2012.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예술지원정책 방안연구」, 2012.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2015.

박미연, '실천으로서의 예술: 민중미술 이후, 한국 커뮤니티 아트의 상황'-재현에서
실천으로 진화하는 예술개념에 관한 소고', 『예술경영연구』제17집, 예술경영학회,
2013.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2006.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연구」, 2009.

성남문화재단,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수립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 2010.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발전방향」, 2014.

심보선·강윤주, '참여형 문화예술활동의 유형 및 사회적 기능 분석: 성남시 문화클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제87호, pp.134-171, 비판사회학회, 2010.

윤태근, 『성미산마을 사람들 : 우리가 꿈꾸는 마을,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을』, 경기: 북노마드, 2011

인천문화재단, 「음악교육 및 향유기반 조성 연구」, 2011

전수환, '실행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예술의 육성-성남문화재단 사례', 『예술경영연구』제13집, 예술경영학회, 200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커뮤니티 아트 진흥 방안 연구」, 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클럽 조성 및 활성화연구」, 200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선 5기의 출범과 지역문화정책의 변화: 지역 문화재단 운영을 중심으로',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17호, 2010b.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연구」, 20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2011.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가의 융합분야 진로현황 분석과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사회성과 융합성을 기준으로」, 2015

Adams, D. & Goldbard, A., Creative Community: The Art of Cultural

Development, NY: The Rockefeller Foundation, 2001.

CCAP, The Informal Arts: Finding Cohesion, Capacity, and Other Cultural Benefits in Unexpected Places, Chicago: Field Museum, 2002.

Dyer, J. H. and Nobeoka, K., Creating and Managing a High-Performance Knowledge-Sharing Network : The Toyota Cas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 2000, p.345-367.

Goldbard, A., New Creative Community: The Art of Cultural Development, NY: New Village Press, 2006.

Putnam, R., 정승현 역, 『나 홀로 불링』, 서울: 페이퍼로드, 2009.

Tepper, S. J. & Ivey, B.(eds), Engaging Art: The Next Great Transformation of America's Cultural Life, NY: Routledge Press, 2008.

참고 사이트

경기문화재단 www.ggcf.or.kr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www.facebook.com/maeulnetwork?fref=ts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삼성경제연구소(SERI) 사이트 www.seri.org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www.kctpi.re.kr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 사이트 www.kosen21.org

박창욱, 「세종문화회관, 청년일자리 창출 나서 - 2013 문화예술매개자 양성사업 참여 청년 모집」, 《머니투데이》, 2013년 3월 19일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1913094910253&outlink=1>

Creative Clash www.creativeclash.eu

VAN www.voluntaryarts.org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부록

부록

1. 12개 문화재단 및 문화의집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요청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강윤주입니다.

저희 연구진은 구체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경기 12개 지역의 기초문화재단 및 도 내 각 지역의 생활예술공동체 관련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 응답지를 기초로 FGI를 실시하여 경기 각 지역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및 방안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시간, 응답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9월 29일 책임연구원 강윤주 드림

▶ 본 연구에서는 생활예술을 “시민/주민들의 관심 예술에 대한 감상, 학습, 창작, 발표 등의 참여활동”, 생활예술공동체는 “시민/주민들이 생활예술을 매개로 연결된 네트워크(동호회, 동아리, 단체, 아마추어예술단 등)”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 여기서 ‘네트워크’라 함은 ‘성남사랑방문화클럽’이나 ‘인천 문화바람’과 같은 동호회들의 연합회(민/관 주도를 가리지 않고)를 의미하고, ‘마을만들기’에 연결된 생활예술인들의 모임 등도 포함합니다.

▶ 질문지는 총 6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귀하 또는 귀 재단(기관, 단체)에서는 생활예술과 생활예술공동체를 어떻게 정의 하고 계십니까?
2. 귀하 또는 귀 재단(기관, 단체)에서 생각하시는 생활예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3. 귀 지역 또는 재단(기관, 단체)에서 진행한 혹은 진행하고 있는 생활예술및생활 예술공동체관련지원사업(축제 포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생활예술 및 생활 예술공동체 사업 또는 활동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4. 현재 귀하나 재단(기관, 단체)에서 현재 파악하고있는 지역의 ‘생활예술공동체’ 의 규모와 특징은 어떠합니까? 가능하다면 범주, 형태, 장르별로 단체 수, 인원 수를 알려주세요.
5. 귀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예술공동체 및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 타 지역에 소개할 만한 우수사례를 알려주세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심층 연구에 앞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강윤주 드림

2. 12개 문화재단 및 문화의집 생활예술공동체 현황 답변서 모음

	부천	화성
1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부천시 생활예술 진흥 조례 제2조)	○ 화성시문화예술동아리 -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대중예술, 감상 등 - 화성시민 2/3이상으로 이루어진 18세 이상의 시민문화예술동아리 (미성년의 문화예술동아리는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원)
2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부천시 생활예술 진흥 조례 제1조)	- 지역 문화예술동아리의 자체기획력 바탕의 생활예술 콘텐츠 - 지역에서의 역할을 찾는 문화생산 공동체(문화예술동아리)활동 -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로 파생되는 상호간 생활예술공헌
3	○ 생활예술(부천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중심) - 사전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예술진흥 중.단기 계획 수립 (2013년) • 생활문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실화 방안 연구(2014년) -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 부천시 생활예술 진흥 조례 제정(2014년) • 공간 : 상동(2013.5.~2014.1) 및 오정 연습장((2013.1~2014.1) 한 시적 운영 / 라운(2013.~현재) ※ 상동 및 오정연습장 재오픈 예정(2014년 10월 20일)	○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사업 - 네트워크 : 운영위원회, 출범식 및 워크샵, 정기총회, 온라인네트워크 - 문화공헌 : 도심속 문화꽃, 동아리페스티벌, 소외지역 나눔활동 - 역량강화 : 우수 사례지 견학, 멘토지원 프로그램, 연습공간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부천문화재단) - 사업개요 : 부천문화재단 + 송내동마을사랑방 협력 사업 추진(2013년~현재) - 사업명 : 문화로 즐언(소란)스러운 우리	

	부천	화성																
	마을, 송내동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주요사업 : 문화로 솔안(소란)스러운 우리 마을, 송내동 • 주요실적(2013년 기준) : 연극동아리(26회), 가족놀이학교(25회), 나눔장터(2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 부천시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 - 신청 : 부천시 소재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음악 및 댄스 동아리)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조건 : 부천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취미 모임 -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동아리 페스티벌 참여 장려 중심 결성 유도 • 2013년(1차년도) 4개 장르 중심 네트워크 결성 • 2013년 부천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실태조사 대상 동아리 17.0% 가입 ○ 부천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실태조사(248개, 7,894명) ○ 가입 동아리 수 : 93팀(1,339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음악</th> <th>미술</th> <th>전통</th> <th>무용</th> <th>대중예술</th> <th>기타장르</th> </tr> </thead> <tbody> <tr> <td>문화예술동아리</td> <td>72</td> <td>24</td> <td>13</td> <td>8</td> <td>13</td> <td>12</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합계	음악	미술	전통	무용	대중예술	기타장르	문화예술동아리	72	24	13	8	13	12	2
구분	합계	음악	미술	전통	무용	대중예술	기타장르											
문화예술동아리	72	24	13	8	13	12	2											
5		문화예술동아리 역량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동탄복합문화센터 문예아카데미강좌용 강의실) 활용을 통한 연습공간 지원 - 여러동아리가 함께 강습받을 수 있는 특강(공공미술, 타장르 등)강사비 지원 																

	하남	의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예술활동 ○ 생활예술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 네트워크, 동호회 등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문화 공동체. 	아마추어 생활예술단체
2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하여 즐거움, 소통을 만들고 누리고 나누는 삶.	문화민주주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예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남시민 노래교실 : 시니어 및 주부 대상 프로그램 - 화요클래식 음악감상 :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청소년 연극학교 : 연극체험을 희망하는 관내 중. 고등학생 대상 - 시니어 연희극 : 55세 이상 시니어 대상 ※ 청소년 연극학교와 시니어 연희극의 경우 지역예술 강사들과 함께 발표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 별별예술마당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재단에서 운영중인 생활예술공동체 ○ 하남시민 노래교실(3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참여자 100명 ~ 130명(노래교실) ○ 화요클래식 음악감상(3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매주 화요일 오후19시30분, 참여자 30명 ~ 50명(클래식) ○ 청소년 연극학교(6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토, 일) 오후2시~5시, 참여자 	

	하남	의정부
	<p>30명, 발표회 11월 중(뮤지컬)</p> <p>○ 시니어 연희극(3월~11월)</p> <p>- 매주(월) 오전10시~12시, 참여자 20명, 발표회 11월 중(연희극)</p>	
5	<p>동자루 무용단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선정단체. '우리동네 황혼 사랑방 시즌3 기획/ 운영</p> <p>- 2014년도 프로그램 내용 요약</p> <p>: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아트 개념으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촬영, 제작 등 이야기를 통하여 상영 및 아카이브 전시.]</p> <p>: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분들이 가진 재능과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기관이나 단체들과 형성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모색과 더불어 소통을 위한 방법</p>	<p>●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 기따세(기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p>

	용인	군포
1	<p>먼저 생활예술과 생활예술공동체와 관련하여 재단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p> <p>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생활예술과 생활예술공동체의 큰 차이점으로 먼저 생활예술은 말 그대로 일반시민이나 단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개념으로, 생활예술공동체는 문화예술단체(동호회 포함)간 상호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창조하고 협력하는 개념의 일반적인 공동체 활동과 좀 더 넓게 보면 문화예술단체(또는 조직)가 전혀 성격이 다른 단체(민간, 공공)와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공동체(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생활예술 ?</p> <p>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생활밀착형 예술활동의 전부</p> <p>생활예술공동체 ?</p> <p>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전문 예술활동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p> <p>공동의 예술체험이나 이해를 목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조직</p>
2	<p>저는 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예술의 가치는 모든 일상생활 자체가 생활예술 가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봅니다.</p> <p>이는 꼭 예술에 참여하는 특정 주체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 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람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예술로 통하고 예술로 행복함을 느끼는 무엇이 있다면 이것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생활예술의 자치라고 생각합니다.</p>	<p>일상 생활의 일부가 예술이 되고, 전문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의 예술창작으로 실 생활에 도움을 주며, 이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생활 속에 공존하고 있는 유무형의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 기여</p>

	용인	군포
3	<p>저희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단내에서는 예술단체(아마추어 포함)의 창작활동 지원, 용인거리아티스트 공연, 시니어소통한마당(어르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소설명작극장(초, 중고등학교 대상 한국 근대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하여 공연), 용인의 예술을 열다(재단과 지역예술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창작활동 지원), 용인뮤지엄페스티벌(2013년 경기도박물관과 연계한 축제사업), 용인거리축제(2014년 문화거점을 활용한 공연 / 축제) 기타 창의예술아카데미, 찾아가는 예술교육, 다문화어린이 아카데미, 레지던시 공간지원, 상주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활동으로 용인예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YAF(용인예술페스티벌) 축제 등이 있습니다.</p>	<p>1.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예술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p> <p>2.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파출소가 돌아왔다 season2” 군포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파출소 유휴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율적,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생활문화예술 공간 창출 사업</p> <p>3. 군포나누미학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참여학습으로 가르침과 배움을 나누며, 문화예술이 접목된 다양한 시민학습 동아리 양산</p> <p>4. 창업미니마켓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지역 문화예술 장터로서 전문.아마추어 작가들의 창작물 전시홍보 및 판매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형성</p> <p>5. 런치타임 음악회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공연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p> <p>6. C.Y.C특성화사업 군포 지역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CLUB팀의 활성화로 다양한 클럽활동과 개개인의 특기개발</p>
4	<p>아직 용인에서는 생활예술공동체 개념에 대한 예술가나 단체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러한 예술가 또는 단체간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사업설명회(2014년 12월 예정)와 공동체예술프로젝트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예술가 및 단체 현황파악을 통하여 재단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재단이 그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p>[사업명/장르/단체]</p> <p>1.<마임으로 듣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공연예술 / 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p> <p>2.<신나는 청소년 연극놀이>, 공연예술 / 극단단</p> <p>3.<이야기랑 놀자>, 공연예술 / 극단단</p> <p>4.<춤추는 우리동네 페스티벌>, 공연예술 / 김은희&늘샘무용단</p> <p>5.<공단마을 문화예술 플랫폼>, 공연예술 / 오만과 편견</p>

	용인	군포
5	<p>아직 타 지역에 소개할 만한 생활예술공동체는 없습니다. 단지 경기문화재단과 1:1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가 있는데 아직 생활문화공동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재단이 출범하여 2년차 사업이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이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어 다른 문화예술지원사업하고 구분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나 노하우도 부족하고 해서 올 해는 어떻게든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2015년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p>	<p>○ ‘파출소가 돌아왔다’ 사업 지역내 파출소 공간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문화예술동아리 및 예술단체, 동호회의 참여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며 지역내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p> <p>○ 군포 시민 극단 생김다 ‘이야기 놀이터’ 군포 시민들로 구성된 전래동화 전문, 시민 극단. 이야기 놀이터는 수년간 이야기 밭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동화극 동아리, 동화나무도서관의 책 읽어주기 자원활동과 군포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책임어주는 문화봉사단이 인연이 된 시민이 모여 창립한 극단이다. 경기문화재단과 군포문화재단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에도 선정. 오경선 이야기 놀이터 대표는 단원들이 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통해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즐겁다며 전래동화극을 통해 군포시 작은도서관 등 곳곳을 어린이들이 맘껏 즐기는 이야기 놀이터로 만들고자 함.</p>
6	<p>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활문화공동체 프로젝트는 문화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현 시점에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p> <p>제가 생각하는 우리 용인지역에서 생활문화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첫째, 우선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우리 지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생활예술공동체</p>	

<p>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일상생활속에서 생활문화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예산포함)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생활문화공동체 프로젝트가 실현 되기 위해서 지역내 문화예술가 및 단체들의 기획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등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입니다.</p> <p>이상과 같이 저 개인적인 짧은 생각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연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산출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p>	
--	--

	안산	성남
1	<p>생활예술 = 아마추어 예술 생활예술공동체 =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p>	<p>■ 생활예술 ○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고 나누면서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생적 예술활동 ■ 생활예술 ○ 예술적 취향이 비슷한 개인들로 구성된 동호회들의 연대, 협력 네트워크</p>
2	<p>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예술 자질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생태계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다져 가야 건강함을 견지할 수 있다. 결국 생활예술이 활성화되어야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p>	<p>■ 생활예술의 가치 ○ 일상 속 생활예술을 통해 시민들간 연대와 협력을 이루고, 이를 통해 공동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기능 ※ 성남문화재단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동호회 형태의 생활예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호회활동과 동호회네트워크활동을 비교한 결과, 동호회네트워크활동이 사회자본 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문화공동체 형성사업 (마을 + 공단) - 청소년 극단 운영 사업 - 공연 예술제 사업 (아마추어 극단들의 단독 또는 연합공연)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 - 예술 아카데미 사업 (일반 + 어르신 + 장애인) 	<p>■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관련 사업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p>

	안산	성남
4		<p>■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관련 사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가입클럽수 : 230개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가입회원수 : 4,600명 ○ 공연:168개, 전시:46개, 기타:16개
5	<p>○청소년 극단 <고등어>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들 대상 아마추어 연극 예술 단체 운영 - 매년 1개 이상 연극작품 제작 - 일본 오키나와 청소년 연극제 참가하여 국제 교류 - 안산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작품 발표 	별첨.
6	생활예술공동체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동시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

	고양	수원
1	<p>고양문화재단이 정의하는 생활예술은 본 연구에서 표명한 생활예술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p> <p>재단은 생활예술을 '시민이 예술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 이라고 넓은 뜻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생활예술공동체란 '예술활동에 필요한 경험과 공간의 공유를 원하는 시민구성원의 모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p>	실생활의 일부분 또는 직·간접적인 참여 형태의 예술
2	<p>생활예술이 가진 가치는 시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p> <p>생활예술이 활성화 되어 얻을 수 있는 기대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를 다 적을 순 없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관객층의 저변이 확대되어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 - 지역의 예술인재 발굴과 지역예술인의 지역 내 활동기회 증가 효과 등 	<p>전문적 예술이 아닌 체험과 향유를 위한 일상의 예술로서 경쟁적인 심리보다는 개인 또는 집단이 단순히 즐기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전문적, 세분화된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p> <p>또한, 개인의 성격·활동 등에 따라 느끼는 가치를 수로 표현하기 어렵게 때문에 생활예술의 가치를 논하기 어려움.</p>
3	<p>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찾아가는 신한류예술단 2013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사업 고양 토요일학교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워크숍 고양시민퍼레이드</p>	<p>우리재단에서는 전문적, 영리 목적의 예술단체 지원이 아닌 단순 동아리 모임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사랑방문화클럽'을 모티브로 한 사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수원문화클럽 활성화(관내 문화예술동아리의 모임) <p>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발전코자 '생활예술창작'이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경기도내 재단을 대상으로 '생활예술창작콜로키움'을 진행)</p>

	고양	수원
4	<p>현재 재단이 파악하고 있는 '생활예술공동체'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p> <p>생활문화센터 사업이 본격화 되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전수조사 및 실태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p> <p>현재는 각 사업팀에서 진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단체(전문예술단체, 아마추어단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p> <p>주요 범주는 전문공연단체(개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학교, 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추어그룹입니다.</p>	<p>우리재단의 수원문화클럽은 50개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연 즉 음악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음.</p>
5	<p>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p> <p>고양시민퍼레이드</p>	<p>우리재단에서 추진하는 수원문화클럽이 있으며, 50개의 음악동아리로 구성된 모임임.</p> <p>수원문화클럽은 자원봉사활동, 결식아동 돕기 콘서트 등 시민을 위한 재능기부와 3개 동아리를 하나로 묶어 합동공연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고 있음.</p>

	안양	오산
1	<p>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생활예술을 본격적으로 거론, 정의하고 사업을 끌여가는 상황은 아님. 따라서 생활예술에 대한 기관 정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음.</p> <p>다만, 현재 재단에서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커뮤니티 사업 혹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생활예술에 속한다고 봄.</p> <p>개인적으로 생활예술은 '개인(일반시민, 예술가, 기획자 모두 포함하여)이 일상생활 속에서 혼자서 혹은 친구(나이, 학벌, 성별 등과 상관없이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와 함께 예술(문해, 창작)의 기술을 학습·활용하는 일련의 활동' 이라고 생각한다.</p>	<p>○생활예술</p> <p>일부 소수들만이 문화예술을 소비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문화예술활동과 이를 향유하는 계층들은 다양화 되고 확대 되었다. 또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낯설게만 느껴졌던 문화예술 콘텐츠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접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명확히 구분되었던 과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문화예술에도 프로슈머(Producer + Consumer)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p> <p>○생활예술공동체</p> <p>과거 단순히 문화예술을 함께 나누며 소비하는 동아리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교육이 함께 병행하며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조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p>
2	<p>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p> <p>일상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숨구멍의 역할을 하는 것</p> <p>개인의 삶 속에서 '약한 네트워크'의 힘을 경험하게 하는 것</p>	<p>많은 사람들이 생활예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활동을 나누며 관심을 갖게 되는 형태의 생활예술 및 생활예술공동체의 활성화야 말로 순수예술과 관객 개발로 고민하는 지역문화재단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p> <p>이는 자발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잠재관객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에 오산문화재단이 생각하는 생활예술의 가치는 '가치' 있는 문화예술을 '같이'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p>

	안양	오산
3	<p>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가족합창단 운영,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주부대상 연극교육 프로그램)</p> <p>문화예술아카데미 사업 : 2004년 평촌아트홀 개관과 함께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기 교육수강생의 경우, 유사 동아리 개념으로 강사 중심의 모임 형태를 띄기도 함.</p> <p>시민축제 :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안양 시민축제는 2박3일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양의 거의 모든 동아리(기관별 아카데미를 통해 굴러가거나 파생된)들(2013년 기준 195단체 신청)이 프린지 공연무대에 올라가고 소정의 출연료를 받음.</p> <p>경기문화재단과 하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박달동프로젝트, 박수갈채' 라는 프로그램이 2010년 APAP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진행하는 커뮤니티 사업임.</p>	<p>- 생활예술지원사업 : 2014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2013년 꿈의 오케스트라</p> <p>- 생활예술공동체 지원사업: 2014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2014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p>
4	<p>동아리의 경우 시민축제에 참여하는 곳을 중심으로 규모측정 가능.</p> <p>예술가의 경우, 시각예술이 많은 편인데 예총의 경우를 보아도 시각예술 쪽이 분과도 많고 활동인구도 많음. 현재 사진 활동하는 프로암들이 가장 활발하고 재단 사업에도 적극적임.</p> <p>예총의 예를 드는 건, 지역 특성상 전업 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의 경계에 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예술가 지원 사업이나 라운드테이블 등을 운영할 때에도 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착됨. (참고. 2012 안양 예술인 실태조사)</p>	
5	<p>재단의 '가족합창단'이 성남 생활문화공동체 축제에서 2등(2013), 1(2014)등상을 받았음.</p>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발간일 2015년 1월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인계로 178
전화 : 031)231-7200

연구기관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자인·인쇄 루다디자인 02)2285-3633

© 2015 경기문화재단